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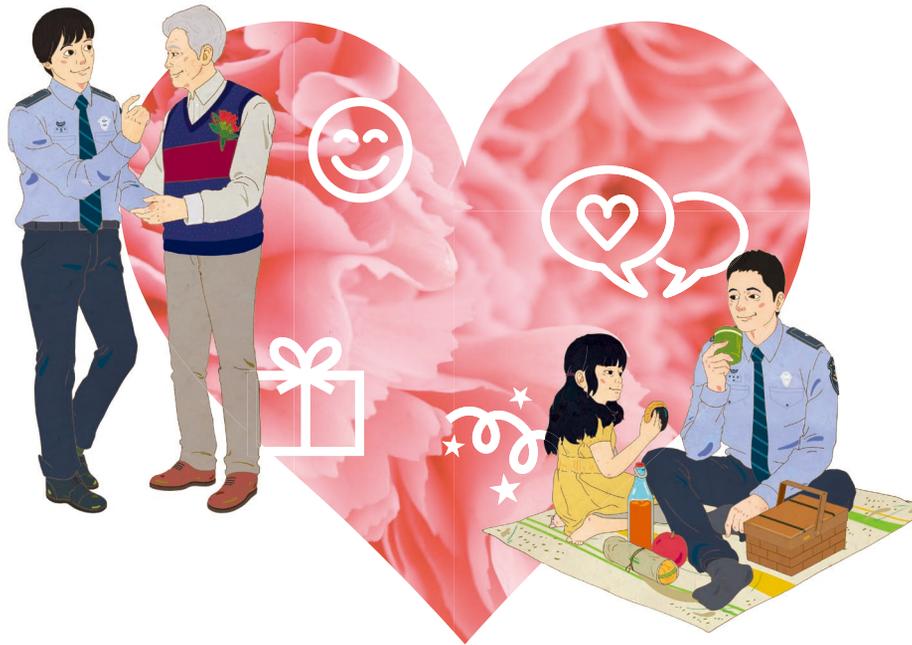
세상을 지키는  
따뜻한 사람들

# 교정

교정 공무원 문화교양지

2018.05

Vol. 504



THANKS

사랑과 배려가 넘치는 삶!  
따스한 햇살 같은 가족의 사랑을 되새겨보자.



일상이 푸른 기운으로 가득 채워지는 5월입니다. 가족의 사랑이 꽃피는 5월, 월간 <교정>이 당신의 사려 깊은 마음과 함께합니다.

## Contents

- 04 포토 이슈  
정책현장 방문 및 필리핀 구치소관리국 일행 방문

### Colorful Think

- 08 Theme Column  
5월의 컬러, PINK  
사랑스러운 기운이 넘실대다
- 10 Theme People  
가정이 바로 서야 범죄도 줄어요  
가정문화원 김영숙 원장
- 14 Theme Talk  
제주처럼 교정 · 교화도 맑고 싱그럽게  
제주교도소
- 18 Theme Advice  
마음은 표현으로 전해진다

### Cheerful Life

- 20 교정은 행복을 신고  
전자음악의 짜릿한 매력에 빠진 하루  
천안개방교도소
- 26 아빠! 어디가?  
꽃처럼 아름답고 꿀처럼 달콤한 봄나들이  
대전지방교정청 교위 김형석 가족
- 30 어느 멋진 날  
순천교도소 심리치료팀의 순천만국가정원 나들이
- 34 패밀리 프로젝트  
반려동물, 또 다른 가족을 맞이하다
- 36 습관의 건강학  
일과 내 삶의 균형점 찾기
- 38 히어로 코믹스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만지맨
- 42 교정 인사이트  
세상 가장 희미해진 철장 안, 아빠와 함께 춤을
- 44 BOOK MARK  
부모와 선생님을 돌아보게 하는 책들
- 46 교정 글마당  
소망교도소 최기훈

### Correction Story

- 48 교정 리포트  
핀란드 교정개혁의 전개와 특징(1950-2011)(上)
- 54 지상강좌  
교정학
- 56 교정뉴스  
본부 소식 & 일선기관 소식
- 64 교정 스타그램  
힐링을 담은 사진 열전
- 66 이달의 공연



교정공무원 문화교양지  
교정 2018년 5월호 (통권 504호) 62권 5호  
www.corrections.go.kr

발행인 김학성 법무부 교정본부장  
인쇄 서울남부교도소  
기획디자인 반디컴 02)2272-11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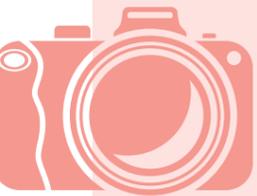
월간 교정은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또는 교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무단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  
수록된 내용은 법무부 교정본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페이스북 주소  
www.facebook.com/mojcor

카카오톡 아이디  
mojcor

페이스북과 카카오톡에서 '법무부 교정본부'를 검색하시면 친구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 Photo Issue

5월, 쾌청한 하늘과 상쾌한 공기가 새로운 하루하루를 깨우는 날이다. 교정본부는 다양한 활동으로 분주하다. 눈여겨 볼만한 이달의 교정 현장을 살펴보자.

정리 편집실 / 사진 이도영



박상기 법무부 장관  
대전교도소 정책현장 방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4월 11일 대전교도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대전교도소의 과밀수용 및 노후 교정시설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학성 교정 본부장은 중앙통제실과 8수용동, 노인전담교육장, 위탁(직조)작업장과 건축도장 실습장, 혈액투석실과 변호인 접견실 등을 방문했으며, 37명의 노인수형자와 14명의 건축도장 훈련생을 격려했다. 또 변호인접견실 시찰 중 무료법률상담을 위해 대기 중인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 강희웅 공익법무관과 환담을 나누기도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대전교도소에 정책현장 격려금을 수여하며 교정공무원을 격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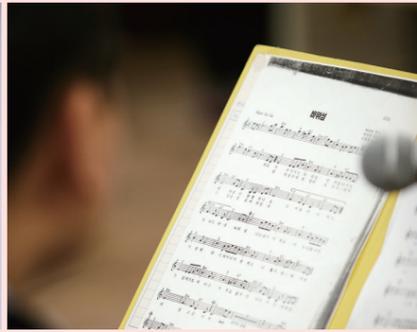


필리핀  
구치소관리국 일행 방문



지난 4월 4일 필리핀 이나시오 판티 구치소관리국 운영 부국장 등 7명이 소망교도소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를 방문했다. 양국 간 협력 및 우호 증진을 목적으로 이뤄진 이번 방문은 김학성 본부장의 환대로 포문을 열었다. 필리핀 구치소관리국 일행이 방문한 소망교도소는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이며,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최신시설과 첨단장비를 갖춘 직업훈련교도소로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는 모의교도소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필리핀 구치소관리국 일행은 세 곳의 시설을 방문하며 앞으로도 양국 간 교류를 더욱 돈독히 할 것을 다짐했다.





**진주교도소  
마음치유 행복콘서트 개최**



지난 4월 13일 진주교도소에서 수형자들을 위한 콘서트가 열렸다. 진주교도소 심리치료센터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13주간의 마음치유프로그램 교육 종료 기간에 맞춰 시행됐다. 진주교도소 심리치료센터의 마음치유프로그램은 2010년 시작되어 27기를 맞고 있는 진주교도소 정신질환 수형자 대상 정신재활 프로그램이다. 이날 콘서트에는 52명의 교육생과 센터직원, 진주교도소 음악동아리인 '선율여행' 단원과 마음치료프로그램 감성교실 외부 강사 등이 참여해 풍성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특히 음악동아리 선율여행 단원들은 음악을 통해 교도관의 본업무인 교정 교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다는 마음을 담아 정성스럽게 행사를 준비했다. 진주교도소 교정공무원들은 마음치유 행복콘서트를 통해, 진주교도소가 정신질환 집중치료기관으로서 정신질환자 치료에서 최고라는 자부심을 다질 수 있었다.





# ● PINK

5월의 컬러

###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

기본적으로 핑크는 화이트에 잔잔히 스며든 레드다. 레드가 지닌 속성과 그대로 이어져 있으나, 그보다는 더 부드럽고 포근하다. 레드가 뜨겁고 강렬한 사랑을 상징한다면, 핑크는 따뜻하고 로맨틱한 사랑을 의미한다. 누군가를 좋아했을 때 갖는 설레고 두근거리는 감정이며, 연인과 데이트를 하며 사랑을 쌓아가는 마음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는 핑크를 통해 사랑스러운 유혹을 펼치고 당당한 자기애를 드러낼 수 있다. 핑크가 전하는 로맨틱한 이미지 덕분일까. 그동안 핑크는 여성을 상징으로 한 화장품이나 옷 등에 많이 사용되어 왔다. 아주 오래전부터 소녀들이 갖고 놀았던 바비 인형부터 추억의 만화영화 '달려라 하니'의 고은에까지 그녀들의 입술은 하나같이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다. 또 풋풋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노래 가사에도 핑크와 관련된 단어들 이 자주 쓰인다. 핑크빛 꽃잎들이 흩날리고, 분홍길을 함께 걸어달라거나 혹은 그대를 위해 분홍색 립스틱을 바르겠다는 구절처럼 말이다.

### 마음을 가라앉히는 배려의 색

핑크는 분노를 누르는 데 효과가 있다. 오랫동안 핑크를 마주보게 되면 뇌의 내부에서 노르에피네프린(norepinephrine)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을 분비하는데, 이 물질이 바로 공격적 행동을 유발하는 특정 호르몬을 억제시킨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의 한 교도소는 거칠고 통제하기 어려운 수감자들의 행동을 억누르기 위해 '핑크색 감방'을 설치한 일화가 있다. 수감자가 규율을 어기거나 너무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면 적어도 30분 동안 이 핑크색 감방에 수감된다. 약 10분가량이 지나면 수감자들의 적대감, 공격적 행동이 약화된다고 한다. 이처럼 핑크는 발랄하면서도 부드럽고 온화한 느낌을 주며 엄격함과 거친 속성을 완화한다. 보고만 있어도 화를 진정시켜주는 핑크는 싸움을 중재하고 단절된 관계를 이어줄 수 있는 색이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하는 관계라면 핑크가 유용하게 쓰이는 이유다. 만개한 벚꽃 잎, 보기만 해도 달콤한 딸기우유 한잔, 분홍색 향초... 오늘 하루 우리 삶에 다양하게 놓인 핑크를 활용하며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다가서고 서로의 마음을 가까이 이어보는 것은 어떨까. 삶의 의미를 풍요롭게 다지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깨알 지식

#### 'about PINK'

핑크색 리본은 흔히 유방암의 상징으로 쓰인다. 1990년 유방암 생존자들을 위한 경주에서 참가자들에게 핑크색 바이저를 나누어준 것이 시작이다. 1991년부터는 참가자들에게 핑크 리본을 나누어주었는데 이듬해 헬스 매거진 <셀프>와 유방암 생존자이자 에스터 로더 그룹의 일원인 이블린 로더가 핑크색 리본을 함께 제작해 뉴욕의 화장품 매장에서 나눠주었다. 핑크 리본 캠페인은 유방암에 대한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매년 10월 유방암의 달에 개최되고 있다.

## 사랑스러운 기운이 넘실대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핑크를 바라봤다. 고요하게 웅크린 태아를 감싸는 자궁 내벽이 핑크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핑크는 바라보는 것만으로 편안하고 기분이 좋아진다. 말없이 곁에서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을 놓이게 하는 어머니처럼 말이다. 우리가 느끼기에 가장 사랑스러운 이 색은 따뜻한 감정을 가진 채 지금도 우리 삶에 다양하게 스며들고 있다.

가정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붕괴한 가정이 얼마나 커다란 나비효과를 일으키는지는 자세히 모른다. 어렵듯이 짐작할 뿐이다. 하지만 김영숙 원장은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34년째 안양교도소를 드나들며 수많은 수용자를 만났고, 그중 많은 이들이 가정 문제 때문에 마음 둘 곳을 잃어 범죄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가 수십 년째 가정의 중요성을 설파하는 이유다.

## 가정이 바로 서야 범죄도 줄어요

### 고희의 현역

“월간 <교정>은 무척 오래된 잡지군요. 저도 안양교도소와의 인연이 어느새 34년째네요. 처음 안양교도소를 갔을 때만 해도 시설이 많이 열악했어요. 쇠창살에, 겨울이면 벽에서 바람이 송송 들어왔죠. 지금 교도소는 너무도 좋아졌습니다.” 김영숙 원장이 504호를 맞이한 월간 <교정>을 들여다보며, 잠시 감회에 젖었다. 교도소는 최근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이나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 ‘착하게 살자’를 통해 대중에게 조금 더 알려진 공간이 되었지만, 여전히 익숙지 않은 것은 사실. 그러나 김영숙 원장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 꼭 방문하는 친숙한 곳이다.

“제가 처음 안양교도소에 오게 된 것은 그곳에서 자원 봉사하던 제 친구가 안양교도소에 와서 성경을 가르치는 봉사를 좀 하라는 것이었어요. 처음엔 못하겠다고 거절했으나 계속 조르는 바람에 결국 하게 되었지요. 그게 34년 전이었어요. 그때는 모두가 어려울 때여서 초등학교도 중학교도 졸업 못한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검정고시 반을 운영하며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죠. 그때 반에서 한글반도 운영했어요. 한글을 공부한 한 형제가 ‘글을 아니 눈앞이 환해졌어요’라고 한 말을 잊지 못합니다. 그와는 지금까지도 가끔 전화하며 안부를 나눕니다. 중학교 검정고시와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에 입학한 제자들도 여럿입니다. 어엿한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보는 것은



아직도 저의 기쁨이고 마음속 자랑이지요. 지금은 고학력자도 많답니다. 그동안 셀 수 없이 많은 이들을 만났죠. 처음에는 왜 이걸 배워야 하냐고 어깃장을 부리다가도 조금 지나면 참 열심히 공부해요. 다들 머리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안양교도소에서 검정고시 전국 1등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목사가 된 우리 제자들만 해도 여럿이에요.” 그는 수용자들을 ‘우리 제자들’이라고 부른다. 김영숙 원장의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들 또한 수용자들이다. 매주 가정문화원에서, 혹은 집에서 안양교도소까지 직접 운 전해서 가는 그가 이 일에 피로를 느끼지 않을 리가 없다. 하지만 매주 금요일이 되면, 관성처럼 그는 어느덧 안양교도소로 향하는 자동차의 핸들을 쥐고 있다. 이심전심, 자신을 기다리는 수용자들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오늘도 현역을 자처하고 있다.



# 김영숙

가정문화원  
원장

###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다

김영숙 원장과의 첫 수업에서, 수용자가 반드시 치러야 하는 통과의례가 있다. 바로 '3분 스피치'라고 불리는 자기표현 훈련이다. 발표에 익숙하지 않은 수용자들의 경우 처음에는 쩔쩔매기도 한다.

“말 그대로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걸 말하지 말고, 하고 싶은 말만 하도록 권유해요. 자신의 지난 삶을 각색하라고 제안하죠. 거짓말과 각색은 달라요. 나쁜 것은 작게, 좋은 것은 크게 보는 것이 각색입니다. 아무리 불우한 삶을 살았더라도 각색을 하다 보면 '그렇게 나쁜 삶은 아니었구나' 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게 되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1940년대 생인 그에게 그때의 대한민국과 지금의 대한민국은 너무도 다르다.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지 못했기에, 고생하시는 홀어머니의 모습도 슬하에 지켜봤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의 어머니는 늘 자식들의 웃을 깨끗하게 입혔고, 열심히 공부하라 말씀하셨다. 그는 그 덕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고 생각한다.

“힘든 적도 많았죠.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만큼은 듬뿍 받았어요. 수용자들은 어린 시절에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들을 보며 많은 범죄의 원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더 마음이 쓰이죠.”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 깨달은 이후, 그는 가정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미국의 가정문제를 다루는 '패밀리 라이프 프로그램'을 공부한 후 한국형 모델로 개발했다. 이후 1992년 '가정문화원'을 설립하여 남편인 칠성산업 두상달 회장과 함께 부부학교를 신설하고 연 150회에 이르는 가정 행복특강을 강연하며,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는 등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안양교도소 출입은 삶의 일부가 된 지 오래다.

“누군가는 힘들지 않냐고 묻기도 해요. 봉사에 지치지 않냐고요. 그럴 때마다 대답은 똑같아요. 이진 봉사가 아니라고요. 그냥 제 삶이죠.”

'봉사'라고 생각했다면 쉬 지쳤을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숨을 쉬는 것처럼 당연한 일상이기에 오히려 힘들지 않았다. 무엇보다 변화하는 수용자들의 눈빛을 보는 일이 즐겁다. 그에게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들으며 공부하는 수용자들은 새로운 삶의 기쁨을 맛본다. 그리고 출소 후에도 정성스러운 글씨로 그에게 편지를 보내오곤 한다. 답장을 쓰는 그의 마음은 늘 감개무량하다. 그저 자랑스럽고, 그저 대견하다.

“  
누군가는 힘들지 않냐고  
묻기도 해요. 봉사에 지치지 않냐고요.  
그럴 때마다 대답은 똑같아요.  
이진 봉사가 아니라고요.  
그냥 제 삶이죠.  
”

### 교정공무원에게도 가정은 중요하니까

오랜 시간 안양교도소에 들르다 보니 김영숙 원장은 교정공무원과도 친숙하다. 그들이 얼마나 살뜰히 수용자들을 챙기는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지, 마음이 얼마나 여린 사람들인지를 잘 알고 있다.

“아직도 교도관을 떠올리면 마냥 거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오해는 이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정공무원 분들도 가정을 잘 돌봤으면 해요. 가정이 화목해야 일도 잘 되는 법이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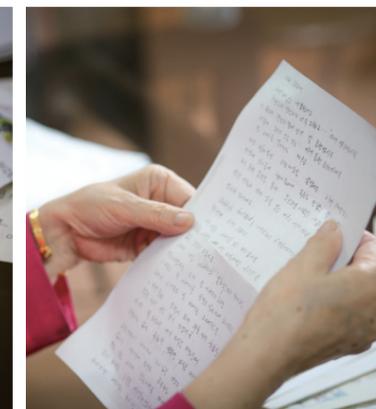
김영숙 원장 역시 그 자신의 가정이 안정되어 있었기에 수용자들을 교육하는 일도 사랑을 베푸는 일도 온전히 이뤄낼 수 있었다. 그는 남편인 두상달 회장과 부부문제를 고민하고 수많은 부부, 수많은 가정을 만나면서 '가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확신을 모으고 모아 남편과 함께 <아침키스가 연봉을 높인다>, <결혼, 천 일 안에 다 싸워라> 등의 책을 지었다. 특히 <아침키스...>는 '아내의 키스를 받고 출근한 남편의 연봉이 20~30% 더 높다'라는 선진국 통계에서 따온 제목이다. (보험통계에 의하면 아침에 부부싸움하고 출근할 때 교통사고율이 가장 높다고 한다. 반면 아침에 아내의 키스를 받고 출근하는 남편은 평균연봉이 20% 정도 높다.) 그는 행복한 가정이 그 자체로 경쟁력이자 에너지이기에, 싸우는 일에도 기술이 필요하다고 귀띔한다.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 싸우지 마세요. 아이들 앞에서 다투었다면, 어떻게 화해하는지를 보여줘야 해요. 아빠가 왜 화가 났는지, 엄마가 왜 속상했는지, 그래서 어떻게 화해를 하기로 했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자잘한 싸움은 아이들 앞에서 해도



괜찮아요. 너무 안 싸워도 부자연스럽죠.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 포옹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 것이 좋아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평생에 걸쳐 가정이란 존재에서 안정감을 느끼죠.”

그 외에도 김영숙 원장은 과거의 일을 들추지 말 것, 용서에 인색하지 말 것, 화장하거나 옷매무시를 가다듬고 싸울 것 등 부부싸움과 관계된 재미있는 팁을 많이 들려줬다. 행복한 가정이란 얼마나 머나먼 길인가. 김영숙 원장의 말에 따르면 부부의 삶은 단식이 아닌 복식이기에, 팀플레이 정신이 필요하다. 환상의 복식조는 하루아침에 생겨나지 않는다. 수많은 경기에서 마음을 맞추고 호흡을 맞춰 온 세월이 켜켜이 쌓일 때 비로소 최강의 전력을 갖춘 복식조가 탄생할 수 있다. 그렇게 환상의 복식조가 하나둘 늘어갈 때, 우리 사회도 더욱 즐거운 에너지로 가득 채워질 수 있을 것이다.



# 제주처럼 교정·교화도 맑고 싱그럽게 제주교도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섬, 제주도.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의 방문도 잦은 곳이다. 대문, 도둑, 거지가 없어서 '3無 섬'이라고 불리던 제주도에 많은 사람이 몰리며 최근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도시 중 하나로 변해가고 있다. 제주도의 치안을 바로잡고 내·외국인 할 것 없이 많은 수용자를 관리하는 우리나라 유일의 섬 교도소, 제주교도소를 만나보자.



세상을 지키는 따뜻한 사람들, 교정

## 유일한 섬 교도소 제주교도소

제주교도소는 1971년 10월 22일 제주형무소로 개칭했다. 제주도가 살기 좋은 도시로 꼽혔던 개칭 당시에는 수용자가 매우 적었다. 그러나 제주도의 교통이 발달하고 관광도시로 입지가 탄탄하게 다져지면서 관광객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범죄율도 많이 증가했다. 외국인의 유입이 늘어남에 따라 제주교도소 수용자들은 국적도, 죄명도, 연령도 모두 다양해졌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수용자를 감당하기 위해 2016년 5월 8일, 신청사가 개칭 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수용자를 감당하기 힘든 실정이다. 교정공무원 수 역시 많아진 수용자 수에 비해 적기 때문에 업무 강도가 센 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제주교도소 직원들은 서로를 도와가며 맡은바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

제주교도소에는 다른 교도소에 비해 외국인 수용자가 많은 편이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 외국인 수용자의 난동, 늘어난 수용자 통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엄정한 수용질서 확립에 앞장서고 있다. 늘 훈련도 실천처럼 임하고 있는 제주교도소는 난동진압 등의 긴급출동훈련과 도주대비 훈련, 합동소방훈련, 사격훈련 등 유사 시 대비 기동훈련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 모든 것에는 장단점이 있듯, 제주교도소는 업무 강도가 세고 열악한 환경이지만 장점도 많다고 박선아 교도는 말한다. “제주교도소는 남쪽을 보면 한라산이 보이고 북쪽을 보면 바다가 펼쳐져 있어요. 특히 눈 쌓인 한라산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죠. 근무할 때 한라산 경치를 보며 일할 수 있어 행복해요. 이 멋진 풍광이 제주교도소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또 다른 교도소에 비해 시내로부터 멀지 않아서 좋다는 점, 그래서 출퇴근하기 편하다는 점, 굴이랑 한라봉을 원 없이 먹을 수 있어서 좋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어요. 제주교도소 내 야자수와 해녀 조각상, 하루방 등 아름다운 조경이 이국적인 분위기를 풍겨 늘 기분 좋게 일할 수 있어요.”

“ 제주교도소는 남쪽을 보면 한라산이 보이고 북쪽을 보면 바다가 펼쳐져 있어요. 특히 눈 쌓인 한라산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죠 ”



## 제주의 특색을 가득 담아 교정 교화에 힘쓰다

제주교도소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교정행정을 지향하고 수용자에 대한 인성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출소에정자 취업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등 수용자 사회복귀능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제주교도소는 급변하는 사회에 걸맞게 선진교정행정을 넘어 행복한 교정, 행복한 국민 구현을 위하여 전 직원이 단결하여 노력하고 있다. 같은 교정기관이지만 제주교도소는 제주의 특색을 가득 담아 제주교도소만의 방법으로 수용자를 교정·교화하고 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영치금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수용자의 무료함을 해소하고 목표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매월 종교서적, 명심보감 등 노트 1권 이상 작성 시, 영치금을 지원해준다. 이 영치금은 제주교도소 직원봉사단체인 한라교정봉사회의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어 더욱 뜻깊다. 두 번째 교정 교화법은 어상자·갈옷·어망 제작, 초콜릿 박스 접지 등 제주의 특색을 물씬 느낄 수 있는 이색 작업 프로그램이다. 이 외에도 제주교도소는 다양한 방법으로 수용자를 교정·교화하고 있다.

### 서로를 가족처럼 생각하는 제주교도소

제주교도소 직원들은 대부분 제주도 현지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하지만 광주청 소속이기 때문에 광주 지역에서도 많은 직원이 발령을 받은 한다. 집에서 멀리 떠나온 직원들은 외로움을 달래고 친목도 다질 겸 활발히 동호회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제주교도소에는 축구장, 테니스장, 탁구장, 유도체육관, 골프연습장 등이 갖춰져 있어 다양한 운동을 통해 자연스레 몸과 마음을 단련할 수 있다. 교도관에게 체력은 기본 소양일 터, 운동 환경이 잘 갖춰져 있다 보니 직원들은 고강도의 업무 속에서도 건강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고 있다. 제주교도소는 축구, 유도, 테니스, 탁구 등 다양한 동호회를 통해 갈고닦은 실력으로 2017년 법무부장관기 축구대회에서 당당히 우승을 차지하였고, 유도는 역대 4회의 준우승이라는 쾌거를 달성하기도 했다. 홍지호 교사는 “제주교도소의 특색 있는 동호회로 ‘낚시 동호회’가 있다”며 “제주교도소는 낚시 동호회에게 최고의 입지 시설”이라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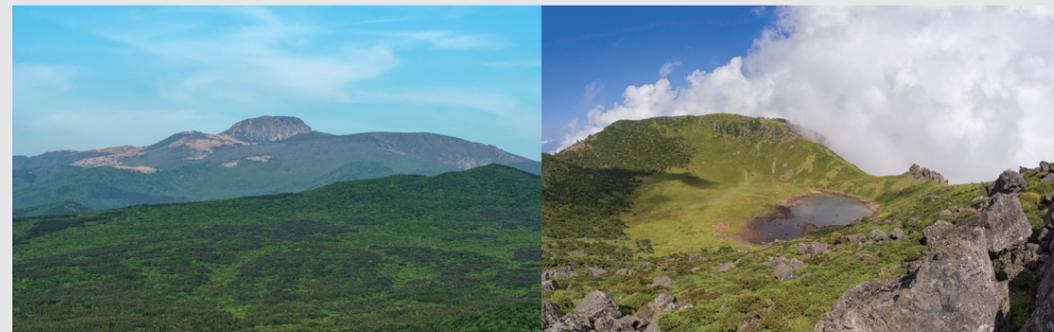
제주도에서 타지생활을 하는 박선아 교도는 “주말이면 고향에 가지 못한 동료들끼리 자주 근교에 놀러가곤 한다”며 평소 제주교도소 직원들 간의 끈끈한 모습을 자랑했다. “제주교도소는 특히 타향생활을 하는 또래 직원들끼리 돈독해요. 사시사철 매력적인 제주를 보러 가기도 하고요. 직원들끼리 여름에는 바다에 가서 스노우쿨링을 하거나 한라산 등반도 하고요, 날이 좋으면 이호테우 해변에 가서 고기도 구워 먹죠. 직원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워요.” 작년 여름에는 직원 10여 명이 낚시를 가서 한치를 잡았고 함께 맛있게 먹었다며 밝게 웃었다. 제주도의 범죄율이 높아지고 교도소의 수용자가 늘면서 업무 스트레스도 늘어났지만, 긍정적인 생각으로 매일을 활기차게 보내는 제주교도소 직원들. 청명한 제주의 하늘과 바다처럼, 늘 기분 좋게 업무에 임하는 그들의 모습이 싱그럽다.



## 제주의 가 볼만한 곳

### 한라산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한라산은 한반도 3대 영산 중 하나다. 한라산은 천연보호구역, 국립공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고, 2007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특히 2008년 물장오리오름 산정화구호 습지가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어 보호·관리 되고 있다.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제주의 거문오름용암 동굴계, 만장굴, 성산일출봉에서 자연의 신비를 만나볼 수 있으며, 자연숲인 비자림, 절물자연 휴양림, 한라수목원에서는 나무의 숨을 통해 산림욕을 할 수 있다. 날씨에 따라 다채로움을 자랑하는 한라산은 꼭 가봐야 할 명소 중 하나로 꼽힌다.



### 백록담

백록담의 뜻은 옛날 선인들이 이곳에서 백록(흰사슴)으로 담근 술을 마셨다는 전설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백록담은 남북 길이 약 500m, 동서 길이 600m, 둘레 약 3km의 타원형 화구로 거의 사시사철 물이 괴어 있다. 순산화산의 원지형이 잘 보존된 국내 가장 높은 산정화구호, 세계생물권보존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동쪽 벽은 신기 분출의 현무암이고, 서쪽 벽은 구기의 백색 알칼리 조면암이 심한 풍화작용을 받아, 주상절리(柱狀節理)가 발달되어 기암절벽을 이룬다. 백록담 주위에는 눈향나무덩굴 등 고산식물이 자란다. 특히, 백록담에 쌓인 흰 눈은 녹담만설(鹿潭晩雪)이라 하여 제주10경의 하나로 꼽는다.

## Theme Talk

### 사랑을 가득 담아 당신에게



교감 고창성

교위 김성준

교위 한경희

같이 직장 생활하다가 육아 때문에 휴직한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많은 걸 포기하고 아이들을 잘 키워주고 거기에 내조까지 잘해줘서 고맙고 사랑한다고요. 앞으로도 행복하게 잘 살자!

어려운 환경에서 항상 고생하는 제주교도소 직원 모두를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시는 박수연 소장님 진심으로 늘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제주교도소, 지금처럼 항상 파이팅!

생전 처음 ‘보안배치’라는 임무를 받아서 어렵고 힘들지만, 다른 직원 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덕분에 자리를 잘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는 동료 여러분, 고맙고 사랑합니다.



교도 박선아



교사 박재형



직업훈련교사 장부철

집 떠나 멀리 제주에서 타향 생활하는 후배가 잘 못 챙겨 먹을까봐 항상 한라봉, 귤 등 먹을 것들을 잔뜩 챙겨주시는 선배님들 고맙습니다. 제주교도소 직원 여러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총무과 직원들과 제주교도소 직원들, 좋은 일이 있어도 나쁜 일이 있어도 항상 함께해줘서 고맙고 사랑합니다.

지난여름 갑작스러운 제주교도소 전보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너무 고생한 우리 가족, 앞으로 제주도에서 우리의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보자. 우리 가족 사랑합니다.

# 마음은 표현으로 전해진다



아무것도 표기되어 있지 않은 상자 안에 들어있는 물건을 확인하는 방법은 열어보는 것뿐이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당사자가 표현하지 않는 이상 어떤 방법으로도 열어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사람의 마음에 상대의 하루, 혹은 미래를 변화시킬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가득하다면 표현하지 않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또 있을까.

## 사랑과 감사가 담긴 표현의 가치

누군가 감사를 표현했을 때 사람들의 행동은 어떻게 변화할까. <설득의 심리학>에서 소개된 일화 하나를 살펴보자.

연례 기부 책임자가 콜센터를 방문해 기부금 모금을 위해 전화를 거는 직원들을 향해 감사를 표했다. 그는 어떤 선물이나 포옹 없이 단지 다음과 같은 말을 건넸다.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를 건네 들은 그룹과 그렇지 못한 그룹에서의 기부금 모금 통화 수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책임자가 방문해 감사를 표현한 그룹에서 50% 더 많은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그리고 행동을 바꾸어놓는다. ‘감사와 ‘사랑’을 잘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더라도 정작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감사와 사랑이 담긴 표현을 건네받는다면 싫어할 리 만무하다. 기분이 좋아지고 표현해준 사람에게 마음이 더 쓰인다.

내 마음에 담긴 상대에 대한 생각은 누구도 읽지 못한다.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 마음이 누구에게도 향할 수 없다. 나와 상대를 이어줄 수 있는 수단,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만들어주는 도구가 곧 표현이다.



나와 상대를  
이어줄 수 있는 수단,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만들어주는 도구가  
곧 표현이다.

## 마음을 표현하는 다양한 수단들

표현은 단지 말뿐만 아니라 행동도 포함된다. 그림에도 가장 강한 힘을 지닌 수단은 역시 말이다. 상대를 인정하고 내가 느끼는 고마움, 행복감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하는 것, 그뿐이다. “아빠가 최고예요!”, “네가 해낼 줄 알았다. 정말 장하구나”라는 말을 듣고 싫어할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 이때 상대를 향해 환한 미소를 함께 건넨다면 상대는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무엇인가 함께 나누는 행동도 표현이다. TV나 컴퓨터, 스마트폰의 방해 없이, 시간을 내어 상대방만을 바라보며 시간을 공유해 보자. 함께 스포츠를 즐겨도 좋고, 같이 쇼핑을 해도 된다. 마주 보고 차를 마시는 것도 좋다. “온전히 내가 네게 집중하고 있어”라는 느낌을 상대방이 읽을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하는 것이 포인트다.

이외에도 선물이 표현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사랑을 담아 선물하는 것이다. 거창하지 않아도 좋다. 퇴근길에 간식을 사 들고 집에 들어간다거나, 아무 날도 아니지만 장미꽃 한 송이를 선물하면 된다. 이때 정성스레 써 내려간 손편지를 함께 전한다면 상대의 마음에 전해지는 울림은 더욱 클 것이다.

행동의 연장선인 ‘봉사’ 역시 좋은 표현의 한 수단이다. 내 작은 수고로움으로 상대방을 이만큼 사랑하고 배려한다는 걸 표현하는 방법이다. 집안일을 도와주거나 아이를 돌봐주는 것, 작게는 쓰레기 분리수거 돕기, 음식물 쓰레기 버려주기, 자동차로 목적지까지 배려다주기 등 다양하다.

감사와 사랑에 대한 표현은 사소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결국 실천하려는 마음가짐이라는 새삼스럽지만 당연한 지론이다.

충절의 얼이 서린 전통의 고장, 충남 천안. 이곳에 자리 잡은 천안 개방교도소는 여느 교도소와는 다른 특별함이 있다. 이곳은 일반 교정시설과는 다르게 주벽, 감시대가 없는 국내 유일의 개방 교도소로, 수형자의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하는 자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오늘, 밝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자랑하는 천안 개방교도소에 경쾌한 음색의 전자음악 선율이 울려 퍼졌다.

## 전자음악의 짜릿한 매력에 빠진 하루

천안개방교도소



### 수용자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곳, 천안개방교도소

사랑, 배려, 감사의 의미를 가진 5월과 더없이 잘 어울리는 천안개방교도소. 1988년 11월 30일 개칭한 천안개방교도소는 오랜 기간 사회와 단절된 수형자가 출소 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데 목적을 둔 교정시설이다. 담이 없는 교도소로 유명한 천안개방교도소는 형기 3년 이상의 모범수 중 4개월에서 1년 6개월 내외의 기간에 가석방이 가능한 수용자만이 선발 대상이 된다. 출소 후 새로운 출발에 대한 희망 때문인지, 이곳의 분위기는 사뭇 밝았다.

‘교정은 행복을 신고’ 팀은 천안개방교도소에 도착하자마자 박희수 소장부터 만났다. “먼 길 우리 직원들을 위해 와주셔서 감사하다”며 반가운 인사를 전한 박희수 소장은 천안개방

교도소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말을 이어갔다. “밝은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 직원들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근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도관이라는 직업은 수용자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감정 노동자에 가깝죠. ‘교정은 행복을 신고’가 업무에 지친 직원들에게 좋은 시간을 마련해주길 기대합니다.” ‘교정은 행복을 신고’ 팀은 이벤트가 펼쳐질 강당 안에서 분주하게 이벤트를 준비했다. 공연을 선보일 직원과 초대 가수들이 한쪽에서는 고운 목소리를 가다듬고, 다른 한쪽에서는 악기 연습에 매진하는 모습에서 오늘의 음악회를 향한 모두의 기대를 엿볼 수 있었다.



**열심히 일한 천안개방교도소, 즐거라**

이벤트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음악회가 시작되자 천안개방교도소 직원들의 박수가 이어졌다. 이어 박희수 소장이 따뜻한 감사의 말을 전했다.

“매일 수용자를 위해 애쓰는 우리 직원들의 노고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주인공이 아닌 보조자로서 헌신하는 역할을 해왔지만, 오늘의 이벤트는 온전히 우리 직원들만을 위해서 준비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으로서, 교도관으로서 우리는 지금 주인공입니다. 오늘 많이 즐겨주세요.”

1부는 보안과 정동욱 교위의 기타 연주로 시작되었다. 퇴직을 5년 정도 남기고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어 참여했다는 정동욱 교위가 선택한 곡은 김철민의 ‘이야와 강은철의 삼포로 가는 길’이었다. 동료 교도관인 홍성교도소의 김종률 교위의 지도로 기타에 입문했다는 정동욱 교위는 그간 천기연사(천안에서 기타를 연주하는 사람들) 동호회 정기공연, 복지시설 봉사공연 등으로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뽐냈다. 정동욱 교위의 노래가 끝나자 객석에서 앙코르를 바라는 소리와 함께 박수와 함성이 터져 나왔다. 무대를 마친 정동욱 교위는 “직원들 앞에서 연주하려니 정말 떨렸다”며 “항상 끝나고 나면 아쉬움이 남지만,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즐기면서 할 수 있었다. 직원들이 호응해주니 기분도 좋고 감사하다.



우리 직원들이 인생의 활력소가 되는 악기 하나 정도는 꼭 다뤘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1부 두 번째 무대의 주인공은 보안과 최명락 교감과 가수, 작곡가, 싱어송라이터를 겸하고 있는 신용창 씨였다. 두 사람은 각자 거리 공연을 하다 인연이 닿아 지금껏 함께 공연하고 있다. 최명락 교감은 “음악에는 희로애락이 담겨 우리의 인생 같다”는 말을 전하며 신용창 씨와 함께 자작곡 ‘대청호 연가’, 진미령의 ‘미운 사랑’, 조경수의 ‘돌려줄 수 없나요’, 김홍의 ‘내일 다시 해는 뜬다’까지 총 4곡을 열창했다. 찰떡 호흡을 자랑하는 두 사람의 무대에 직원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며 화답했고,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면서 마음껏 공연을 즐겼다.

1부의 마지막 무대는 직원 식당에서 직원들의 든든한 식사를 책임지는 마순기 조리원의 노래로 마무리됐다. 특별 게스트로 등장한 마순기 조리원은 박구윤의 ‘뿐이고’를 부르며 “내 사랑은 교정뿐이다”라는 말을 전해 직원들을 기쁘게 했다.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행복한 추억**

뜨거운 1부 무대가 끝나고 2부가 시작되기 전, 막간을 이용해 간단한 퀴즈 이벤트가 열렸다. “천안개방교도소 여직원은 몇 명일까요?”, “천안개방교도소가 개청한 날은 언제일까요?” 등 천안개방교도소에 애착이 있다면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냈고 정답을 맞춘 직원에게 소정의 상품권을 증정했다. 퀴즈 시간은 천안개방교도소 직원들 특유의 밝은 에너지 덕분에 참여도가 높았다. 깜짝 이벤트가 마무리되고 곧 시작된 2부는 그룹 스텔라의 무대로 시작됐다.

전자 바이올린, 전자 첼로, 리모트 키보드로 구성된 전자현악 그룹 스텔라는 익숙한 곡을 강렬한 사운드로 편곡하여 직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긴장해서 2시간 밖에 못 잤는데 가족처럼 따뜻한 분위기로 맞아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건넨 스텔라는 첫 곡으로 캐리비안의 해적 OST ‘He’s a Pirate’를 연주하며 세련된 무대 매너와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신나고 경쾌한 음악으로 흥을 돋운 스텔라는 이어서 비장함이 물씬 묻어나는 곡이자 드라마 하얀 거탑의 OST 중 하나인 ‘B Rossette’를 감성적으로 소화해 호응을 끌어냈다. 이윽고 스텔라는 “천안개방교도소와 수용자의 아름다운 인연을 위해”라며 이선희의 ‘인연’을 연주했다. 직원들은 감상에 젖은 눈으로 노래를 음미했다.

하지만 숙연한 분위기도 잠시뿐. 이내 강한 비트가 강당에 울려 퍼졌다. 스텔라가 한국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던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곡인 ‘Smooth Criminal’을 연주했기 때문이다. 기승을 띄게 하는 베이스와 감각적인 선율이 단숨에 직원들의 귀를 사로잡았다.

이어 베토벤 9번 교향곡 합창을 편곡한 ‘Nine’을 연주한 스텔라는 마지막으로 직원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멜로디의 ‘아리랑’을 연주하며 모든 무대를 마쳤다. 새로운 장르의 음악을 맛보는 기쁨을 누린 직원들은 무대가 끝난 후에도 흠여지지 않은 채 서로를 바라보며 오늘의 감동을 나누었다. 모두의 얼굴에 미소가 한동안 끊이지 않았다. 오늘날만큼 천안개방교도소 박희수 소장의 말처럼 모든 직원이 주인공이 된 특별한 날이었다. 이 행복한 추억이 천안개방교도소 직원들의 기억에 오래도록 남아 새로운 내일을 일굴 희망으로 피어나길 기대해본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시면 현장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교정은 행복을 Happy corrections



## 천안개방교도소 음악회

음악으로 힐링을 선사 받고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한 천안개방교도소 직원들,  
그들의 후기를 들어본다.



### 의료과 교감 채수훈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나'라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음악을 통해 행복해지는 스스로를 발견한 것 같아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누군가에게 어깨를 빌려줄 수 있는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참 행복했습니다.

### 보안과 교감 최명락

직원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하지만 자주 얼굴을 마주하지 못했던  
분들도 있는데, 오늘 음악회에서 반가운  
인사를 많이 나눌 수 있었습니다.  
교도관이라는 직업특성상 평소에  
경직되는 일들이 많은데, 오늘만큼은  
다들 함께 즐길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어서 무척 기뻐했습니다.



### 보안과 교위 정동욱

그동안 자주 공연을 해왔는데 직원들 앞에서  
노래하려니 떨렸습니다. 프로는 아니지만  
직원들과 함께 즐기며 연주했고, 좋은 무대를  
끝낸 것 같아요. 객석에서 나온 앙코르 신청  
덕분에 기분도 너무 좋았어요.



### 보안과 교사 염석현

늘 수용자 공연만을 계획해왔는데 이번에  
직원도 공연을 즐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원 분들 중에 노래에 재능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덕분에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보안과 교위 이태위

'교정은 행복을 신고'에서 멀리  
우리 교도소까지 와서 직원들  
스트레스를 풀어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보안과 교위 김진숙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지 몰랐어요. 악기  
연주도 마찬가지고요. 음악으로  
하나 되는 좋은 시간이었고,  
음악을 통해 정말 힐링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 전자현악 그룹 스텔라

저희 스텔라는 전자 바이올린, 전자 첼로, 리모트 키보드로 구성된 전자 현악 그룹입니다. 팝,  
OST 등 여러 장르의 익숙한 음악을 편곡하여 관객과 소통하는 무대를 만들고 있어요. 경찰,  
군부대 공연은 자주 해봤지만 교도소 공연은 처음이라서 분위기가 무겁진 않을지 도착 전까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려와는 달리 천안개방교도소 교도관님들께서 가족 같은 분위기로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고 호응해 주셔서 끝까지 즐겁게 공연할 수 있었습니다. 교도관분들의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 것 같아 매우 보람칩니다. 수용자들이 올바르게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묵묵히 맡은 책임을 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꿀벌&텃밭 체험

꽃처럼 아름답고 꿀처럼 달콤한  
봄나들이

대전지방교정청 교위 김형석 가족



따뜻한 날씨, 예쁜 풍경. 가족과 함께하는 좋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대전지  
방교정청 김형석 교위(37)가 아내 유소연(37) 씨와 함께 딸 예란이(7)를 데리  
고 특별한 추억을 쌓았다. 공기 좋은 농장에서 꿀벌 체험과 텃밭 체험 등 잊지  
못할 한때를 즐긴 김형석 교위의 봄나들이를 따라가 보자.

모처럼만에 쌓는 추억의 첫 장

전일 촉촉하게 내리던 봄비가 그치고 화창한 날씨가 김형석 교위 가족을 반겼다. 농장에 들어서자 골드레 트리버 종인, '호두'라는 이름의 강아지가 연신 꼬리를 흔들었다. 자기보다 커다란 '호두'를 보고 놀란 예란이는 아빠 뒤에 숨어 조심스럽게 '호두'와 인사를 나눴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가족이 농장에서 처음 가진 시간은 식사시간이다. 농장 아주머니가 근사한 점심을 가족에게 대접한 것. 싱싱한 버섯과 함께 아침 텃밭에서 재배한 유기농 채소, 계란프라이, 특제 고추장을 듬뿍 넣은 비빔밥이 먹음직스러웠다. 여기에 아주머니가 갖가지 반찬을 내어주자 수라상 부럽지 않은 한 상이 푸짐하게 차려졌다. 김형석 교위 가족은 맛있게 점심을 먹고 본격적인 꿀벌 체험에 나섰다. 꿀벌 체험장으로 가는 와중에 부부에게 평소 아이와 체험 활동을 자주 다니는지 물었다. 김형석 교위는 "최근 우리 부부가 서로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해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며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더 소중하고 특별하다"는 말을 전했다.



마침내 가족이 꿀벌 체험장에 들어서자, 과학 교사로 근무하다 귀농했다는 농장 사장님이 꿀벌에 대한 설명을 가족에게 자세하게 들려줬다. 본격적으로 꿀벌을 직접 관찰하는 시간, 유소연 씨는 딸 예란이가 벌에 쏘이지 않도록 방충 모자를 꼭꼭 동여매주었다. 벌꿀 체험장에는 수천 마리의 벌들이 부지런히 꿀을 나르고 있었다. 많은 꿀벌을 보고 놀란 탓인지 예란이가 움츠러있자 김형석 교위와 유소연 씨는 손을 꼭 잡아주며 예란이를 다독였다. 여왕벌을 보며 감탄하던 그때, "아빠, 아파"라는 한 마디와 함께 예란이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예란이의 손에 꿀벌 침이 박힌 것이다. 김형석 교위는 "벌침이 깊게 박히지 않아 다행"이라며 침착하게 벌침을 제거해주었다.

**마음을 담아 새싹의 씨앗을 심다**

김형석 교위 가족은 예란이의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농장 실내로 돌아와 루꼴라 샌드위치 만들기에 돌입했다. 유소연 씨는 고루 잘 먹는 남편에게 샐러드, 치즈, 루꼴라를 가득 올린 모든 샌드위치를, 향이 강한 채소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예란이를 위해서는 달콤한 꿀 샌드위치를 만들었다.

예란이의 마음이 조금은 진정됐을 즈음, 가족은 다 함께 식물농장으로 발길을 향했다. 농장 안에 가득 찬 새싹 내음이 향긋했다. 집 앞 정원을 꾸미며 허브, 새싹 채소 등 다양한 식물에 관심이 생겼다는 김형석 교위 부부는 식물농장을 보자마자 눈을 반짝였다. 유난히 추웠던 이번 겨울을 이겨내고 올해도 활짝 잎이 핀 예쁜 베고니아, 팬지 등의 꽃부터 심은 지 이제 일주일 이 됐다는 작은 새싹 채소까지 다양한 식물들이 한눈에 펼쳐졌다.



농장 아주머니는 가족에게 “무농약으로 자연 그대로 키워서 그냥 드셔도 된다”며 새콤한 베고니아를 맛보길 권유했다. 가족은 식용 꽃의 새콤한 맛에 얼굴을 찡그리면서도 처음 맛본 새로운 맛에 신기한 내색을 보였다.

김형석 교위 부부는 사장님으로부터 식물에 관한 설명을 들으면서 “이 식물들이 월동에도 괜찮은가요?”, “병충해 관리 비법이 따로 있나요?”라고 물으며 호기심을 드러냈다. 이후 사장님은 산목 화분 선물과 함께 아이와 미니 텃밭을 가꿀 수 있는 ‘새싹 채소 심기’ 시간을 진행했다. 예란이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작은 고사리손으로 흙을 깔고 씨앗을 뿌리는 한편 잘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물을 흠뻑 주었다. 여기에 예란이가 한 글자씩 토박토박 쓴 이름표까지 화분에 꽂으니 비로소 가족의 뜻깊은 주말 나들이가 완성되는 듯했다.



**가족이 함께 의지하겠다는 다짐**

유소연 씨는 “세종시 근교에 이런 체험 학습장이 있는지 몰랐다”며 “꿀벌 체험은 외곽으로 가야 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좋은 곳을 알려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형석 교위 역시 “오랜만에 야외에 가족과 나와 좋은 경험도 하고 꿀벌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며 “관심 가지던 허브에 대해 알게 되고 친절한 설명을 들어서 더욱 좋았다. 오기 전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왔는데 기대가 충분히 충족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형석 교위 부부는 오늘 하루 예란이가 꿀벌에게 쓰여 당황했던 일에 대해서도 웃으며 얘기했다.

“예란이 입장에서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저도 그렇지만 평소에 좋아하던 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습을 보게 됐는데요. 아이의 기억 속에는 신기하고 재밌는 하루로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김형석 교위는 가족을 향해 진솔한 마음으로 감사의 말을 전했다.

“지금 우리 딸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예쁘고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아내는 최근에 일이 많아졌는데 바쁜 와중에도 늘 가족을 위해 노력해줘서 고마워요. 앞으로 우리

가족에게 좋은 일만 가득할 테니 힘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야외에서 찍기 힘든 가족사진을 찍을 수 있어서 좋았다는 김형석 교위 가족, 이들에게 오늘 하루가 두근두근 꺼내볼 수 있는 따뜻한 한 장의 사진처럼 마음에 새겨졌길 기대해본다.

TIP

**세종 꿈꾸는 농장**

꿀벌의 생태계를 공부할 수 있는 꿀벌 체험 후 텃밭 정원에서 수확한 어린잎채소, 허브, 식용 꽃등으로 샌드위치, 비빔밥 만들기 등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농촌 체험 중심의 복합 교육 공간이다.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송정골길 11  
홈페이지 : blog.naver.com/jko0189

‘아빠! 어디가?’는 교정인께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전하는 코너입니다. 월간 <교정> 애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신청 메일 주실 곳  
- correct2015@naver.com  
- yjw1219@korea.kr

# 유래! 상래! 통래! 순천교도소 심리치료팀의 순천만국가정원 나들이

〈순천교도소〉

교감 정영식, 교위 박성현, 교위 김동훈, 교위 김복수, 교위 남정락,  
교위 김희선, 교위 조정열, 교사 김덕고

풍광이 수려하기로 유명한 순천에서 따뜻한 사연이 도착했다. 순천교도소 심리치료팀 김동훈 교위가 같은 과 동료들과 함께 아름다운 순천만국가정원을 보며 심신의 피로를 풀고 친목을 다지고 싶다는 마음을 전한 것이다. 동료들을 향한 사랑이 가득 담긴 사연을 접한 '어느 멋진 날' 팀은 김동훈 교위의 바람을 이루어주기 위해 순천에 도착했다. 생생한 그 날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본다.

## 수용자들의 교정·교화가 꽃피운 순천만국가정원 내 환경정원

김동훈 교위를 만나기 위해 '어느 멋진 날' 팀이 달려간 곳은 전라남도 순천시. 그 중에서도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한 우리나라 국가정원 1호 '순천만국가정원'이다. 순천만국가정원은 순천교도소와도 깊은 인연이 있다. 순천교도소는 2012년부터 환경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지속적으로 자생식물 복원 협력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 사업은 사라져가는 고유의 자생식물을 수용자가 직접 증식·보급함으로써 국가 생물자원 보호정책에 기여한다. 여기에 수용자가 자생식물을 재배하면서 마음을 순화시키고 출소 후 취업 혹은 창업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순천만국가정원에 기증된 식물은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히어리를 포함한 4종으로 순천만국가정원 내 환경정원에서 만나볼 수 있다.

'어느 멋진 날' 취재팀이 순천만국가정원에 도착하자 가랑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순천만국가정원이 야외시설이기에 오늘의 이벤트가 잘 진행될 수 있을지 걱정되던 참나, 하나 둘씩 모인 순천교도소



어느 멋진 날'은 교정의 여러분께 문화관광의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동료와 함께 보고 싶은 영화나 연극이 있다면 지금 아래 메일로 신청해주세요.  
신청 : correct2015@naver.com / ywm219@korea.kr

심리치료팀 팀원들이 반갑게 취재팀을 맞이해주었다. 비가 조금 오는데 괜찮겠냐는 말에 직원들은 “사람도 적고 우리끼리 우산 쓰고 보면 되지요”라며 호탕하게 답했다. 순천교도소 심리치료팀의 든든한 버팀목을 맡고 있는 정영식 교감도 “더운 날씨를 싫어하는데 오늘은 축복받은 것처럼 이슬비가 오네요. 걷기 딱 좋습니다”라며 이벤트에 청신호를 보냈다. 심리치료팀이 순천만국가정원에 입장하자 가장 먼저 꽃으로 만든 강아지가 심리치료팀을 반겼다. “우리, 사진 찍을까요?”라며 즐겁게 일렬로 선 심리치료팀은 연신 셀피도 찍고 서로 사진을 찍어주며 얼굴에 웃음꽃을 가득 피웠다.

순천만국가정원에 입장한지 한 시간 반 가량 지났을까. 웃고 떠드는 사이에 가랑비가 찾아들더니 금방 비가 그쳤다. 넓은 순천만국가정원을 전부 돌아보진 못했지만 오늘의 첫 번째 일정을 기쁘게 마무리하고 두 번째 일정을 향해 차를 돌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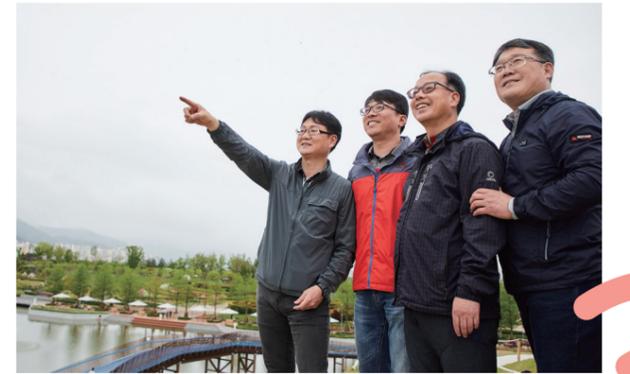
#### 따뜻한 국밥 한 그릇에 담긴 정, 사랑, 고마움

두 번째 목적지로 가는 동안 순천교도소 심리치료팀에 대해 묻자 정영식 교감은 자랑스러운 듯 순천교도소 심리치료팀에 대해 설명했다.

“순천교도소 심리치료팀은 다른 교도소 심리치료팀과는 다르게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 직원이 감정자유기법인 EFT(Emotional Freedom Techniques)를 사용해 수용자를



“ 순천교도소 심리치료팀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직원이 감정자유기법인 EFT를 사용해 수용자를 치료합니다 ”



“ 동료들과 많이 чо 많이 이야기 나누 하루였습시다 ”

#### 교위 김동훈

교도소 내에서는 함께 협업할 기회가 적기도 하고 동료들과 항상 긴장된 상황 속에서 지내곤 하죠. 오늘 하루만큼은 동료들과 밖으로 나와 웃고 떠들고, 같이 걷는 시간을 가져서 정말 좋았습니다. 우리들은 함께일 때 더욱 즐거운 거 같아요. 잊지 못할 시간을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치료합니다. 또, 우리 팀 모두 심리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요. 순천교도소 심리치료팀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면 바로 모두와 공유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수평적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서로의 선생님이 될 수 있죠.” 정영식 교감은 김춘오 소장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도 전했다.

“소장님께서서는 우리 직원들을 권위적으로 대하신 적이 단 한번도 없어요. 늘 존중 해주셔서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수평문화가 유지되고 있죠. 소장님께 늘 감사해요. 수용자 처우에 있어서 사람 마음이 문제인데, 소장님이 정신과 및 심리적 치료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거든요.”

순천교도소 심리치료팀과 이야기를 나누며 도착한 곳은 순천의 명물, 옷장 국밥거리. 따뜻한 국밥과 푸짐한 수육이 순천의 명물다운 모습을 자랑했다. 김동훈 교위가 심리치료팀 직원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여러 가지 말들이 따뜻한 국밥과 수육 한 그릇으로 모두 설명이 되는 듯했다. 심리치료팀이 허기진 배를 국밥과 수육으로 든든히 채울 즈음, 김동훈 교위에게 오늘 이벤트로 순천만국가정원과 국밥거리를 택한 이유에 대해 물었다.

“순천만국가정원은 우리나라 1호의 국가정원이잖아요. 이 아름다운 정원에서 예쁜 꽃과 행복한 사람들의 표정을 보며 동료들 모두가 힐링의 순간을 만끽하길 바랍니다. 국밥도 비슷한 이유예요. 싸고 맛있고 풍성하고, 무엇보다 부담스럽지 않은 음식이잖아요. 이 국밥을 함께 먹으며 서로 더욱 마음을 나눴으면 해요.”

오늘 하루를 함께한 직원들의 감흥도 남달랐다. 모두들 “생각지도 못했는데 정말 힐링했다”며 “정말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라고 답했다. 정영식 교감 역시 “여러 기관을 거쳐 근무해왔는데, 순천교도소에서 김동훈 교위와 어느 멋진 날 팀이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해주어서 감동했다. 즐거운 이벤트였다”며 만족스러워했다. 김동훈 교위도 앞으로 이런 이벤트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때로는 마음에도 비가 오듯 속상한 날이 있다. 하지만 비가 그치면 더 쾌청하고 맑은 내일이 오듯, 순천교도소 심리치료팀 앞에 화창한 봄날 꽃길만 가득할 것이라 믿는다.





## 반려동물, 또 다른 가족을 맞이하다

가족과 함께 있어도 대화의 소재 거리를 찾기 힘든 시대에 직면한 탓일까. 우리 집의 분위기를 북돋아 주고 가족 모두에게 추억을 안겨주는 반려동물의 인기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 아이의 벗이 되어 줄 반려동물에 대해 관심이 높다. 그렇다면 반려동물은 실제로 아이에게 좋은 영향은 미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해답과 함께 반려동물을 선택하는 방법, 키우는 데 필요한 마음가짐에 대해 알아본다.

### 아이의 사회화 과정에 도움 주는 반려동물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아이들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 같이 뛰어놀거나 산책하면서 운동능력이 향상돼 전반적인 신체 활동을 끌어올려 주는 덕분이다. 또한 미국소아과 학회(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는 개나 고양이와 어렸을 적부터 접촉하며 함께 지낸 어린이들이 호흡기 감염이나 귀 감염을 더 적게 앓을 확률이 높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려동물이 아이들의 면역력을 향상한다는 얘기도 있다.



신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우선 아이들은 직접 반려동물을 통해 책임감을 배울 수 있다.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며 무언가를 관리하고 돌보는 일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미리 깨닫게 된다. 또한 반려동물을 키우면 사회생활을 할 때 다른 친구들을 더 많이 사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반려동물이 사회화 과정에서 일종의 촉매제 역할을 하는 덕분이다. 호주 대학의 리사 우드 부교수는 개나 고양이 외에도 토끼 같은 작은 반려동물 역시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원천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반려동물은 아이들에게 그 자체로 즐거움과 기쁨을 선사하며 어린 시절 따뜻한 추억을 만들어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맞벌이로 바쁜 부모를 둔 아이들, 형제가 없는 외동들에게 반려동물은 집 안에서 무언가를 함께할 수 있는 유일한 가족이다.



### 반려동물과 오래 함께하겠다는 약속

반려동물을 키우기에 앞서 어떤 동물을 선택할 것인지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만약 반려동물과 산책하는 것을 귀찮아하는 성격이라면 개보다는 고양이를 선택해야 한다. 개는 산책을 좋아하는 동물로 집안에만 있을 경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고양이를 키우려면 털 빠짐에 대한 각오를 해두자. 대소변에 대한 관리가 개보다 상대적으로 쉬운 대신 털 빠짐으로 인한 관리는 어렵다. 수시로 청소기로 돌리는 것은 필수다. 화려한 패브릭이나 가짜 털로 된 패브릭을 펼쳐 놓고 그 위에서 놀게 하는 것도 고양이를 키우는 방법 중 하나다. 집안 곳곳에 날리는 털 관리를 조금이나마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비교적 한 공간에 머무르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다면 토끼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단 토끼는 입으로 무엇이든 갉아려는 습관이 있으므로 늘 딱딱한 음식을 곁에 두어주어야 한다.

어떤 반려동물을 선택하든 우리가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반려동물을 끝까지 키우겠다는 '책임감'이다. 반려동물은 장난감이나 인형이 아닌 생명이므로 한번 키우면 버릴 수 없는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개의 경우 많게는 15년 이상을 함께 살 수 있는 만큼 가족의 구성원을 들인다는 생각으로 반려동물을 맞이해야 한다. 아이들에게 반려동물이 액세서리가 아니라 진짜 내 가족이라는 생각을 늘 인지시켜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 일과 내 삶의 균형점 찾기

근무시간을 줄이려는 정부의 대책이 발표되면서 우리 사회도 일과 사생활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일하는 데 익숙하지만 내 시간을 갖는 데는 오랫동안 인색한 우리는 이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일도 잘 하면서 내 개인적인 시간을 풍요롭게 채울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살펴본다.

### 오랜 업무는 질병의 근원

일과 사생활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벨(Work & Life Balance)'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다. 능률적인 생산을 유도하고, 한 개인으로서의 삶도 의미 있게 충족시키자는 워라벨의 의도에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워라벨을 갈망해온 것은 당연했다. 장시간 노동과 격무에 시달린 사람들이 여러 증상과 질병에 노출되며 괴로워한 탓이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연구팀은 유럽, 미국, 호주에 거주하는 심질환이 없었던 60만 명을 평균 8.5년간 추적 조사하고, 뇌졸중이 없었던 53만 명을 7.2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수시로 초과 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정상 근무를 하는 사람보다 심질환이나 뇌졸중에 걸릴 위험이 더 높아진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첫 번째 원인이라고 입을 모은다. 스트레스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과민성장증후군, 만성피로증후군, 역류성식도염은 물론 번아웃증후군(소진증후군) 등 각종 질환에 노출되기 쉽다는 것이다. 또한 스트레스가 심해질 경우 우울증, 불안 등 정신적인 질환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계속된 업무가 반복된다면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 워라벨, 내 삶의 여백 채우기

워라벨 문화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가를 조정하려면 '일하는 시간'을 알아야 하므로 우선 '일'과 관련된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야 한다. 업무 내용과 자신의 일정을 오늘 할 일과 이번 주, 이번 달 내 할 일로 정확하게 기록해두는 것이다. 업무 일정은 갑작스러운 회의처럼 계획에 없던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여유 시간을 적절히 남겨두어야 한다.

그다음 여가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가장 좋은 취미 활동은 역시 운동이다. 서울에서는 25~35세 직장인 남녀가 모여 전문 트레이너의 도움을 받으며 건강한 몸을 가꾸는 '버핏서울' 같은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체계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중도에 포기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취미 활동을 펼쳐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문화 콘텐츠에 몰입할 때 인생을 바라보는 시점이 주인공에서 관객으로 바뀌면서 삶이 새로운 에너지로 충전될 수 있다. 나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버리게 되고, 적당한 거리를 둔 채 세상과 나를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물 흘러가는 듯 자연스러운 일상을 지향하며 어느 정도 마음을 비우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어쩔 수 없는 것은 내버려 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수용하라"는 삶의 지혜를 터득해가는 것이다. 원망과 불만으로 내 인생을 낭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어느 상황에서든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삶과 일의 균형점을 맞추어야 한다.

# 국민을 환란에 빠뜨리는 판지만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 했네요.



네. 어찌나 말을 잘 하는지..  
저도 모르게 현혹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도  
다른 곳에서  
저 같은 사람을 꺾어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보니 지난 번  
출소한 분이 만났던  
그 이상한 남자도 비슷한 이미지였어...  
안 되겠다.  
내가 좀 알아봐야겠어!



### @@@ 사업설명회

잘 들으셨죠?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여러분 모두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 와 와

믿습니다~



절대 반품은  
안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럼요~



이런 좋은 사업을  
혼자만 아시면  
안 되겠죠?

당연하죠! 가족, 애인, 친구~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전부 데려 올 겁니다!



열심히 해서  
기필코 피라미드  
꼭대기에 오르겠어!



그래, 그래-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다  
구렁텅이에 끌어  
들이는 거야. ㅋㅋㅋㅋ...



사람들에게 불법을  
저지르도록  
현혹하시는 건  
옳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지  
모르겠는데?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조사해 봤습니다.  
이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더 이상 출소한 분들의  
마음을 흔들지 마세요!



내가 흔들는 게 아니야.  
그들이 흔들리는 거지.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강하지  
않거든~



만지맨과 교정맨의 결투, 그 승자는? To be continued...



**흑인 소녀들이 품은 가장 낭만적인 꿈**

가난한 흑인 여자 아이들을 돕는 비영리 조직 '캠프 디바'의 대표 안젤라 패튼. 자신도 흑인 여성으로서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펼치는 그녀는 어느 날 흑인 소녀들을 불러 모아 질문 하나를 던졌다. "아빠와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나"는 물음이었다. 소녀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아빠와 춤을 추고 싶다"고 대답했다. 가족과 추억을 나누고 싶은 일상이 소녀들의 진짜 소망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때 고개를 숙인 소녀 앨리스가 "자신은 아빠와 그럴 수 없다"고 말했다. 주변 친구들이 그 이유를 묻자 소녀가 어렵게 입을 떼며 덧붙인 한마디는 다음과 같았다. "우리 아빠는 감옥에 계셔." 찰나의 정적이 흐르던 순간, 안젤라는 다른 소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우리 모두가 아빠와 춤을 출 수 있을까"라고 의견을 구했다. 한 소녀가 의견을 내놓았다. "앨리스의 아빠가 계신 감옥에 가서 댄스파티를 하면 어떨까?" 대부분의 소녀가 그 말에 고개를 가우뿔거린 것은 당연했다. 소녀들은 "누가 어린 여자 아이들 무리를 교도소에 들여보내 아버지랑 춤추게 해주겠어?"라는 반응을 보였다. 분위기를 진정시킨 안젤라는 소녀들과 머리를 모아 작전을 짜보기로 했다.

**세상 가장 희미해진 철장 안, 아빠와 함께 춤을**

월간 <교정>은 교정 인사이드 칼럼을 통해 세계 명사들의 강연으로 유명한 TED 강의를 소개하고 있다. 이번 호는 흑인 여성 강연자이자 가난한 흑인 소녀들을 돕고 있는 안젤라 패튼의 '아빠와 함께 춤을'이라는 강연을 추천한다. 우리는 흔히 수용자 아버지를 둔 딸들이 자신의 아버지와 정신적으로도 분리돼 있을 것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안젤라 패튼은 이 생각에 반기를 든다. 철장 안에 수감된 아버지들도 딸을 생각하고, 딸 역시 그들의 아버지와 추억을 나누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가장 극단적으로 분리된 이들의 사연을 통해 안젤라 패튼이 강조하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아버지와 딸들의 강한 유대와 사랑이다.



Angele Patton  
TED 강연 영상



**철장 너머, 딸과 아버지가 유대를 맺다**

고민 끝에 안젤라와 소녀들이 생각해낸 방법은 지역 보안관에게 편지를 써 "우리 모두는 아빠와 함께 춤추고 싶으니 교도소에서 댄스파티를 열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었다. 소녀들은 자신의 진심이 담긴 편지를 이름까지 적어 보냈고 결국 보안관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성공했다. 죄수 아버지를 둔 총 18명의 소녀는 교도소에 초대됐다. 소녀들은 교회를 갈 때 입는 가장 예쁜 옷을 입고 아버지들은 파란 죄수복을 정장으로 갈아입었다. 모든 아버지와 딸은 서로를 부둥켜안은 채 같이 웃었고 행복을 나누었다. 아버지들은 손을 뻗어 딸들에게 춤을 추자는 손짓을 했고, 생애 가장 멋진 동작으로 춤을 추기 시작했다. 파티가 끝날 때 소녀들은 감옥에 있는 아빠들에게 자신들이 만든 노래를 불러주고 "아빠가 무슨 일을 했건 상관없으며 다정한 아빠로만 보인다"는 말을 전했다.

이후 이 이벤트는 '아빠와 함께 춤을'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발전돼 미국의 많은 교도소에서 시행됐다. 효과는 긍정적이었다. 딸과 춤을 춘 아버지들은 출소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눈에 띄게 낮아졌고, 아빠의 사랑을 확인한 소녀들은 건강한 자아를 지닌 어른으로 자랐다. 안젤라 패튼은 강연 끝에 이 에피소드에 대한 소회를 다음과 같이 전했다. "저는 아이들이 그들의 아버지와 이어졌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철장 안에 있는 아버지들을 둔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철장 안에 있는 아버지들도 그 안에서 다른 아버지와 똑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 딸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라고 늘 고민하는 것이죠. 비록 철장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들은 자신들의 딸과 결코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TED '아빠와 함께 춤을'편 시청방법**

www.ted.com에 접속한다 → 오른쪽 위의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한다 → 검색창에 'Angele Patton'을 입력한다 → 동영상 중 'A father-daughter dance ... in prison'을 재생한다.

\* 동영상 화면 오른쪽 아래의 말풍선 아이콘을 클릭하면 언어를 선택할 수 있으며, 한국어로도 지원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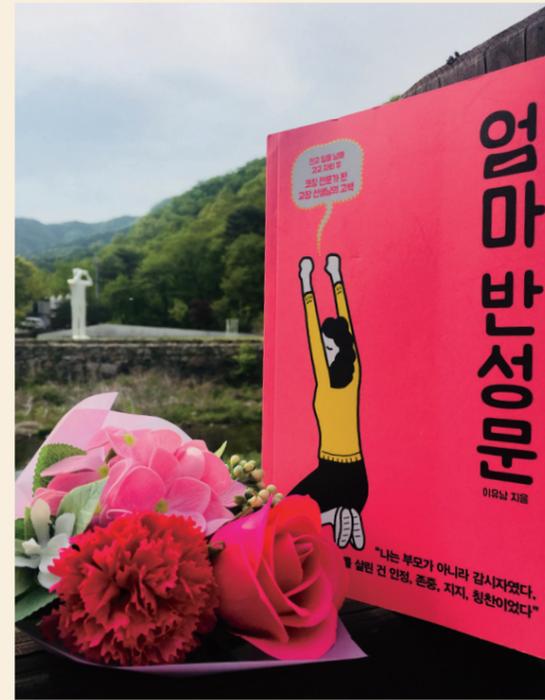
# 부모와 선생님을 돌아보게 하는 책들

해마다 5월이 되면 더욱 부각되는 단어들. 바로 가족, 부모, 자녀, 선생님이란 존재들이다. 교정공무원의 삶에도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으며, 부모가 있다. 또 교정공무원은 수용자들에게 때론 부모 같은, 때론 선생님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할 때도 있다. <월간 교정>이 추천하는 책을 통해 가족과 부모, 선생님의 의미를 되새겨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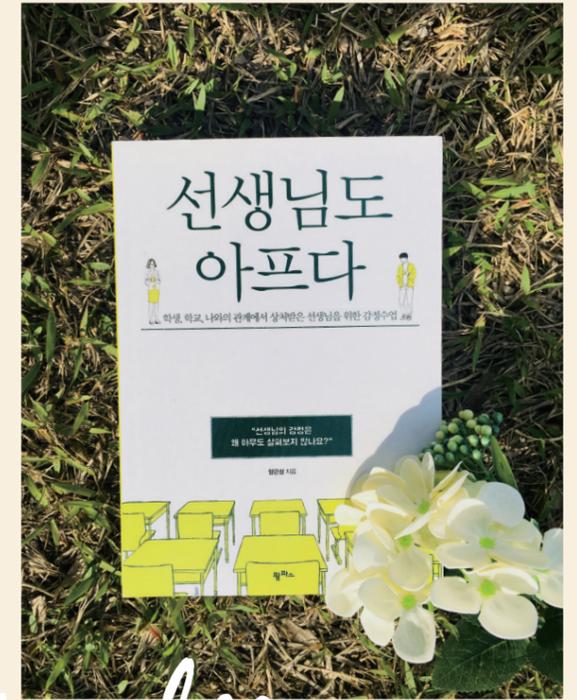
**아버지는 말하셨지**  
송정연, 송정림 지음 / 책읽는수요일

'내 인생을 바꾼 아버지의 한 마디'란 부제가 붙은 이 책은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바로 그 말들을 가득 담았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방송작가로 유명한 송정연·송정림 자매가 함께 엮었다. 세상의 아버지들은 모두 비슷하다. 자식에게 해줄 말이 많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마음에만 담아둔다. 이 책에 쓰인 말들은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바로 그 말인지도 모른다. 책에는 인생의 길을 똑바로 잘 걸어가기를 바라는 우리 시대 아버지들의 간절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 누구도 널 도와줄 수 없을 때가 온다, 멀미 날 땀 멀리 보라, 용돈은 이다음에 늘거든 받으며, 그릇 크기를 보고 물을 부어라, 이 계절을 몇 번 더 볼 수 있을까, 가시가 없으면 생선 맛이 덜하다, 비가 오면 집 안에 꽃을 꽂아라, 세상에서 중요한 것들은 다 공짜다, 뭐가 그렇게 슬퍼할 일이나 등 짧지만 깊은 지혜가 담겨 있는 조언들이 인생의 강을 건너는 친절함 약도가 되어줄 것이다.



**엄마 반성문**  
이유남 지음 / 텐스토리

이 책은 늘 1등 교사, 1등 엄마로 자신만만했던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저자가 전교 1등인 고3 아들의 느닷없는 자퇴 선언을 시작으로 고2 딸의 연이은 자퇴, 그리고 이어진 악몽 같은 사건들을 겪고, 절망의 끝에서 코칭을 만나 희망을 키워낸 생생하고 진솔한 경험을 담고 있다. 저자는 자신이 부모가 아니라 감시자였고, 무자격 부모였다고 이야기하면서 부끄러웠던 과거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자녀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킨 과정을 자세히 소개한다. 또한 저자는 대화법 등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다양한 코칭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한다. 코칭의 가장 중요한 기술은 인정, 존중, 지지, 칭찬. 특히 칭찬은 자존감을 살리는 핵심 요소이자 코칭의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이가 못한 것을 잘하라고 꾸중하기보다는, 잘한 것을 찾아 칭찬하는 교육을 해야 아이가 부족한 부분을 채울 힘을 얻는다고 강조한다.



**선생님도 아프다**  
양곤성 지음 / 팜파스

선생님이란 직업은 결코 녹록하지 않다. 이를 증명하듯 교사 10명 중 1명이 중증 우울증이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해마다 1, 2월이면 개학에 대한 스트레스 장애로 상담 받는 선생님들이 많아지고 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신의 직장'이라며 남들의 부러움 섞인 시선을 앞에 두고 차마 '실은 죽을 듯이 힘들다'고 말하지 못하는 선생님. 이 책은 누구보다 외롭고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선생님들의 감정을 공감하고 치유하는 심리에세이다. 이 책은 선생님들의 지친 마음과 억눌린 감정을 살펴보고, '아, 나도 이런 적이 있었는데!'란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이러한 공감적 경험과 선생님을 둘러싼 관계에 대한 상처를 심리적 관점에서 따뜻하게 조언해준다.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살펴볼 수 있는 활동도 담겨 있어, 가르치는 현장에 있는 이라면 누구나 성장 경험을 이끌도록 도와줄 것이다.



#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께 마지막 글을 올립니다.

우리 아버지 故 최정규(崔貞奎) 님은 우리 어머니의 기둥 같은 지아비였으며 우리 오남매의 자랑스러운 아버지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특권인지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아버지를 부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눈물 많으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인 참 눈물이 많으셨습니다. 고된 농사일이 힘들어 술에 취하셔도 예의 입버릇처럼 젖은 목소리로 “우리 아들은 착혀, 암! 네가 복이 많아 우리 며느리들도 착혀...” 노상 그렇게 말씀하시니, 착한 아들 착한 며느리가 될 수밖에요.

이런 우리 아버지가 이제 우리 곁에 안 계시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이렇게 갑자기 우리 곁을 훌쩍 떠나실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슬픔입니다. 가슴에서 솟구치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어머니 홀로 남게 되었으니 지아비 없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아버지는 또 늘 마음에 품고 있는 말인 듯 자주 이 두 마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누히들은 구엽계 살아라”, “재미있게 살아라”라고 말입니다.

당신의 생애가 그리 고단하고 고통과 땀과 눈물뿐이었으니 평생의 한(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인생은 ‘구엽계(귀엽게, 사랑스럽게)’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재미있고 의미 있는 삶의 주인공이 되라는, 아버지의 가르침이자 평생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렇게 멋진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칭찬에 인색한 듯해도 진정한 칭찬으로 우리를 일깨우셨습니다. 과장된 걸치레 칭찬이 아니라 실속 있는 칭찬이었습니다. 우리들이 농사일을 조금이라도 거들어도 “거 봐라, 엉뚱하다”며 고마워하셨고 자식들 앞에서 어머니의 권위를 아주 역설적인 말로 세워 주셨습니다. “누히 암마를 봐라. 키는 자그마해도 아주 무섭다”라고 말입니다. 확실히 우리 어머니야말로 우리들의 위대한 어머니요 온전한 아버지의 아내였습니다.



지난 2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부음을 듣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지만 많은 분의 위로와 사랑에 힘입어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랫글은 장례예배 가운데 조사로 읽은 아버지께 올리는 편지입니다.

아버지, 아버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꾸 눈물이 납니다. 수십 평생, 아버지의 짐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칠남매의 맏이로서 열아홉 살 때부터 시작한 머슴살이였으며 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6.25 전쟁에도 참전하였습니다. 그 일이 어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평생을 낫질과 지게질, 쟁기질과 썩레질로 우리 온 식구를 먹여 살리고 살림을 일으켰습니다.

예배당 새벽 종소리 들리는 네 시 반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쇠죽을 끓이며 할머니 주무시는 사랑채를 덥히고 갓 꼴, 밭 논, 장구 뱀이, 원안, 이육교 간사지 논까지 둘러보시고는 어느 틈에 쇠꼴 한 짐 베어 마당 가에 세워 놓았습니다. 아버지의 이마에는 땀이, 바지는 찬 이슬에 젖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들은 잠을 자고 있었으니. “여러 자느냐?”라고 말씀하시던 아버지의 목소리, 지금도 쓰겁게 들려오는 듯 합니다.

그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랑신의 사계절은 하루가 열흘 같은 으뎀 농사꾼이었습니다. 쉬어야 마땅한 겨울날에도 아버지는 지게를 지고 먼 산에 올랐지요. 오전과 오후, 하루에 두 번씩이나 땀감을 장만 했습니다. 그때 나는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나가서 아버지의 나뭇짐을 쳐보았습니다. 얼마나 무겁던지요. 아, 아버지의 짐이 우리 가족을 따뜻하게 하는 짐이었구나,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런 아버지가 우리 곁에 안 계시다니, 다시금 쓰거운 눈물이 솟구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잊지 않도록 가슴에 품어야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이루지 못한 꿈을, 아버지의 정직한 삶을 마음 판에 아로새기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제 아버지를 떠나 보내드립니다. 고통과 땀과 눈물이 없는, 지게도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로 말입니다. 그 나라, 천국에서 만나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2018년 2월 7일

오남매를 대신하여 큰아들 기훈이가



# 핀란드 교정개혁의 전개와 특징(1950-2011)(上)



## I. 서론

북유럽의 형사 제도는 다른 지역의 형사제도와 다르게 진전된 측면이 있는데, 하나의 두드러지는 특징은 범죄의 증가가 형벌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많은 연구들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범죄율과 구금률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며, 구금률은 해당 국가의 문명화의 정도 혹은 정치적 선택의 문제로 귀결된다. 따라서 북유럽에서는 감금을 확대하기보다 형사제도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 앞의 평등을 강조하는 신고전주의적 원칙을 대폭 수용하고 일반 예방을 강조하며, 오히려 특수 구금 시설을 폐지한다. 마찬가지로 형법 개정을 통해 자유형에 대한 대안을 추구하고 수형자의 권리를 확대하는 교정 정책을 보여주고 있다(한인섭, 1994). 예를 들어, 2016년 4월에는 2011년 11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폭탄테러와 총기 난사로 77명을 살해한 아네르스 베링 브레이비크(Anders Behring Breivik)가 '교도소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다시 한 번 노르웨이의 교정정책이 주목받았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파격적이라고 불릴만한 편의를 제공 받으며 교도소 생활을 하고 있는 그에게 오히려 더 많은 권리가 보장되고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판결은 많은 사회적 논쟁을 불러왔지만 북유럽 교정정책의 독특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북유럽 여러 국가들 중에서 핀란드는 인구 10만 명 당 교도소 인구 비율이 낮은 편이고, 매우 혹독했던 교정 시스템을 단기간에 북유럽식 시스템으로 개혁했으며, 한국과 몇 가지 면에서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교정제도를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구체적으로 첫째, 북유럽의 교도소 인구 비율은 전 세계 여러 나라, 예를 들어 영국(148.3), 스페인(137.9), 독일(77.4)과 비교해 매우 낮은 편이다. 그 중에서도 핀란드는 2015년 현재, 북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노르웨이(70.3), 스웨덴(58.6), 덴마크(56.1)에 이어 54.8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Marcelo F. Aevi & Melanie M. Tiago & Christine Burkhardt,

2017:34)<sup>1)</sup>. 핀란드가 이와 같은 비율을 유지하게 된 것은 불과 얼마 전으로, 핀란드의 수형자 비율은 20세기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매우 높았고, 1990년에 비로소 이웃국가들과 비슷해졌다(von Hofer H & Lappi-Seppälä, T & Westfelt L, 2012: 16).

둘째, 핀란드는 단기간에 교정시스템을 북유럽 식으로 개혁했다. 핀란드의 교정철학과 제도는 처음부터 다른 북유럽 국가들의 그것과 유사하지 않았다. 다른 북유럽 국가들과 달리 핀란드에서 형벌은 1940년대까지 매우 혹독했다(Lappi-Seppälä, 1998: 1-2). 내전과 소련과의 전쟁 후에는 열악한 수용소 사정으로 많은 수형자들이 사망했고, 교도소 내에서 징벌이 횡행했다. 하지만 핀란드는 1960년대에 북유럽식 형사제도를 받아들이면서, 교정제도를 합리적이고 인도적인 방식으로 빠르게 전환시켰다. “형사 정책은 일반적인 사회 발전 정책과 분리될 수 없으며, 좋은 사회 발전 정책이 가장 최선의 형사 정책이다”<sup>2)</sup>라는 슬로건은 핀란드의 교정 제도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말이다. 핀란드의 형사 제도는 노르딕 복지 국가 이상을 반영하고, 사회적 소외와 평등한 노동을 강조하며, 범죄에 반대하는 조치이다. 그것은 범죄 통제와 형사정책은 단순히 위험한 개인들을 통제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정의의 부분이라는 것을 강조한다(Lappi-Seppälä, T, 2009: 350, 374).

셋째, 핀란드와 한국은 전혀 다른 사회체제와 교정제도를 발전시켰지만 몇 가지 비슷한 지점들을 공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먼저, 핀란드와 한국은 각각 비슷한 신화와 종교를 공유하고 있는 '북유럽'과 유교문화에 영향을 받은 '동아시아'라는 매우 강한 지역 문화권 안에서 성장해왔다. 다음으로, 지정학적으로 핀란드와 한국은 대단히 강한 강대국 사이에 위치해 있다. 한국이 중국과 일본이라는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것처럼, 핀란드는 스웨덴과 러시아 사이에서 약소국으로 살아왔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핀란드와 한국은 강대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왔다. 핀란드가 스웨덴으로부터 600년의 지배와 뒤이어 러시아로부터 100여 년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면(Lavery, J. E., 2006), 비슷한 시기에 한국은 중국과 일본이라는 강대국 사이에서, 500년 동안 중국에게 강한 영향을 받았고, 20세기 초에는 일본으로부터 36년간 식민 지배를 받았다. 두 나라는 독립 후, 좌우 진영으로 갈라져 심각한 내전을 겪었고, 전후 가난과 빈곤에 허덕였지만, 노키아와 삼성으로 대표되는 IT분야와 교육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강소국으로 부상했다. 마지막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핀란드와 한국은 비슷한 좌·우 대립과 갈등을 겪었다. 핀란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좌·우 내전 이후 1930년 공산주의 법과 1939년 공화주의 보호법을 통해 좌파 세력을 억압하고 통제해 왔다(Lahti, Raimo, 2013: 50)<sup>3)</sup>. 이러한

1) 북유럽의 교도소 인구 비율은 2015년 이후 약간의 변동이 있었다. 조사에 따르면 2017년 현재 스웨덴이 53, 노르웨이가 74, 덴마크가 59, 핀란드가 57이다.

2) “Good social development policy is the best criminal policy.”, 독일어로 “Sozialpolitik zugleich auch die beste und wirksamste Kriminalpolitik darstellt.”라는 말은 오늘날, 핀란드뿐만 아니라 노르딕 국가들의 형사 제도를 설명할 때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용어이다. 하지만 이 의견을 처음으로 제시한 이는 독일의 형법학자 Franz von Liszt이다. 그는 1905년 그의 저서 <형법 강의와 논설>에서 ‘나이나 질병, 장애로 인한 실업, 부당한 노동과 불충분한 임금, 재생산을 저해하는 열악한 주거환경 등과 같은 것들이 범죄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요소들’임을 주장하면서,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노동계급의 모든 상황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정책은 가장 최선의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형사정책이다”라고 역설한다(Liszt, 1905: 246).

3) 핀란드 내전과 좌·우갈등 그리고 화해의 과정에 대해서는 책 <Historicizing the uses of the past: Scandinavian perspectives on history culture, historical consciousness and didactics of history related to World War II>의 33쪽부터 39쪽을 참조. 특히 거의 금기시 되거나 무시되었던 내전에서 집단학살과 좌파에 대한 신원회복은 첫째, 개혁 혹은 진보세력의 정치 진출과 더불어 시작되었다는 점, 둘째, 교과서 내용의 수정을 통해 진행된 점, 셋째, (정부 혹은 교회의) 공식적인 인정과 사과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그것과 유사하다.

이데올로기적 대립은 한국에서 정치범에 대한 억압적 처벌을 강화시켰지만, 핀란드의 경우 교정제도에 주는 영향은 미미했다.

이처럼 핀란드 교정제도와 개혁과정은 같은 북유럽 문화권 안에서도 특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한국과 비교했을 때에도 흥미로운 지점들을 포착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지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 글이 핀란드의 교정개혁에 주목하는 이유이다. 핀란드는 왜 과거와는 전혀 다른 교정 정책을 취하게 되었을까? 핀란드의 교정 제도는 어떻게 개혁되어 왔을까? 이 글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핀란드 교정제도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다. 특히 핀란드의 교정개혁의 역사적 배경과 정책적 함의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II. 핀란드 교정체계와 교정행정

### 1. 형사제재본부

핀란드 교정행정은 법무부 형사정책부 관할 아래 Rikosseuraamuslaitos (RISE, 형사제재 본부)에서 총괄한다<sup>4)</sup>. RISE의 업무는 법원의 판결이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집행되는지 확인하는 것이고, 범죄자의 재범 위험을 줄임으로써 사회 안전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의 RISE는 2010년에 교도소 서비스, 보호관찰 서비스 기구를 통합하여 만들어졌다. 새로운 기관 아래서, 핀란드는 남부와 서부, 동북부의 세 지역으로 형사 관할 지역을 구분하고, 폐쇄형 교도소(Suljettua Vankila)와 개방형 교도소(Avovankila)<sup>5)</sup>, 그리고 지역사회재센터(Yhdyskuntaseuraamus Toimistot)를 기본 단위로 두고 있다. 2016년 말 현재, 핀란드에는 14개의 지역사회재센터와 26개의 교도소가 있다(RISE, 2016: 11).

4) 2017년은 핀란드에서 교정행정이 중앙집권화 된 지 150년이 되는 해이다. 1867년 핀란드에서 처음으로 전국 교도소 감찰관이 확립되었고, 이를 기점으로 교정행정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개혁되기 시작했다(Rikosseuraamuslaitos, 2017.01.12). <http://www.rikosseuraamus.fi/fi/index/ajankohtaista/tiedotteet/jauutiset/Tiedotteet/jauutiset2017/01/suomenkeskiteittyvankeinhoitotayttaa150vuotta.html>(검색일 2017. 6. 3).

5) 개방형 교도소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발전한 교도소 시스템이다(M.B. Manaworker, 2006: 101). '개방형 교도소'의 개념은 1955년 범죄예방과 범죄자 처우에 관한 제1차 유엔 총회에서 공식화되었다. 총회에서는 개방형 교도소의 일반적 성격에 관한 윤곽을 잡았다. 첫째, 개방형 교도소는 벽, 자물쇠, 바, 무장 혹은 비무장한 경비대와 같은 보안 조치가 없다. 둘째, 이 체제는 수형자가 자발적으로 받아들인 규율과 그들이 속한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기반으로 한다. 이 일반 공식은 많은 국가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종류와 다양한 형태의 개방형 교도소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Lopez-Rey, M., & Germain, C., 2013: 124). 북유럽의 개방형 교도소의 개념은 핀란드에서 시작되었다. 1930년대에 핀란드에서 죄수들은 농장에서 일하는 것이 허락되었다(Pratt, J., 2008: 122). 핀란드에서 (체계화된 형태의) 개방형 교도소의 기원은 1946년의 '노동 작업장(Labour colonies)'에서 찾을 수 있다. 1년 이하의 단기형을 받은 초범들이 주로 이곳으로 보내졌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자들이 여기에 속했다. 마찬가지로 출소 후 5년 이내에 다시 죄를 저지른 재범자들도 여기에 속했다. 1955년 3월 '노동 작업장' 대상자는 2년 이하의 형을 받은 범죄자와 교도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노동 작업장으로 보내질 수 있는 범죄자까지 확대되었다. 벌금을 납부할 수 없는 사람들, 교도소에서 석방된 재범자들도 보내질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1955년 3월에 장기형을 받은 수형자와 강제 노동형을 받은 수형자를 위한 '감옥 작업장(Prison colonies)' 체도를 도입했다. 이 작업장은 중급 혹은 최상급의 보안을 유지하는 교도소에서 신중하게 선택된, 개방형 기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수형자들, 자발적으로 원하는 수형자들, 육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수형자들이 이곳으로 오게 되었다(Soine, V., 1964: 19).



〈그림 1〉 형사제재본부 조직도

자료: Rikosseuraamuslaitos, (2017. 2. 28.)<sup>6)</sup>

〈그림 1〉과 같이 형사제재 본부는 중앙 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와 세 지역의 지역 센터로 구성된다. 중앙 행정 부는 헬싱키에 있으며, 운영지원과 효율적 제재, 그리고 행정과 법률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세 부서로 구성된다. 집행부는 이전에는 지역에서 담당했던 공식 집행 업무를 담당한다. 형의 공식적인 집행과 강제적인 시행은 핀란드 헌법에 따라 수감기간, 감시형<sup>7)</sup>, 그리고 미결수용이 실현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연수원은 형사 처벌분야에 관련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직업 능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연수 과정을 제공한다<sup>8)</sup>. 기관별 기능은 다음과 같다.

### 2. 교도소, 지역사회재센터, 그리고 집행부

#### ① 교도소

형사제재 본부에는 26개의 교도소가 있다.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교도소는 남부와 서부, 동·북부 지역에 각각 6개와 8개, 그리고 12개가 위치해 있다. 2016년 말 현재, 수형자의 67%가 폐쇄형 교도소에, 33%가 개방형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폐쇄형 교도소보다 더 자유로운 조건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간주되는 수형자는 개방형 교도소로 옮겨진다. 개방형 교도소에서는 항상 사복을 착용한다. 수형자는 작업, 학습 혹은 교도소 내 활동에 참여해야 하고, 매일 적어도 1시간 동안 야외에서 운동을 한다. 폐쇄형 교도소에 있는 수형자는 제한된 한도 내에서 전화와 서신을 통해 외부세계와 연락을 할 수 있다. 그들은 교도소 내 접견건물 혹은 가족 방에서 일정 시간동안 외부 방문객을 만날 수 있다<sup>9)</sup>.

6) <http://www.rikosseuraamus.fi/en/index/criminalsanctionsagency/organisation.html>(검색일 : 2017. 6. 3).

7) Valvontarangaistus, 영어로 Monitoring sentence. 2011년 11월 1일부로 시행된 감시법에 의하면, 감시형은 만약 지역 사회 제재형을 부과하는데 장애에 있는 경우, 무조건적인 구금(Ehdoton Vankeusrangaistus/Unconditional Imprisonment)을 부과하는 대신에 최장 6개월을 넘지 않는 선에서 선고된다. 감시형을 선고 받은 범죄자는 확인된 일정표에 의해서 집 혹은 지정된 공간을 외출할 수 있으며, 형 선고 전체기간 동안 알콜 성분의 물질은 사용이 금지된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기술적 (전자)장비와 예고 없는 방문을 통해 감시받는다(RISE, 2016: 5).

8) Rikosseuraamuslaitos, (2017. 2. 28), <http://www.rikosseuraamus.fi/en/index/criminalsanctionsagency/organisation.html>(검색일 : 2017. 6. 3).

9) Rikosseuraamuslaitos, (2013. 10. 25), <http://www.rikosseuraamus.fi/en/index/units/prisons.html>(검색일: 2017. 6. 3).

지역	교도소	교도소 종류
남부	헬싱키 감옥(Helsingin vankila)	폐쇄형
	리히마끼 감옥(Riihimäen vankila)	폐쇄형
	반따 감옥(Vantaan vankila)	폐쇄형
	요켈라 감옥(Jokelan vankila)	폐쇄형과 개방형 병존
	께라바 감옥(Keravan vankila)	개방형
	수오멘린나 감옥(Suomenlinnan vankila)	개방형
서부	함멘린나 감옥(Hämeenlinnan vankila)	폐쇄형
	필마코스끼 감옥(Kylmäkosken vankila)	폐쇄형
	투루꾸 감옥(Turun vankila)	폐쇄형
	삐따꾼따 감옥(Satakunnan vankila) : 꼬위리오 지역(Köyliö, 폐쇄형), 후이띠넌 지역(Huittinen, 개방형)	폐쇄형과 개방형 병존
	바샤 감옥(Vaasan vankila)	폐쇄형과 개방형 병존
	바나야 감옥(Vanajan vankila)	개방형
	비플라 감옥(Vilppulan vankila)	개방형
	가위라 감옥(Käyrän vankila)	개방형
	꾸오피오 감옥(Kuopion vankila)	폐쇄형
	미켈리 감옥(Mikkelin vankila)	폐쇄형
동북부	오울루 감옥(Oulun vankila)	폐쇄형
	뵐소 감옥(Pelson vankila)	폐쇄형
	뵉하셀라 감옥(Pyhäselän vankila)	폐쇄형
	쑤께바 감옥(Sukevan vankila)	폐쇄형
	유카 감옥(Juuan vankila)	개방형
	께스틸라 감옥(Kestilän vankila)	개방형
	라우까 감옥(Laukaan vankila)	개방형
	나라야르비 감옥(Naarajärven vankila)	개방형
쑤까바 감옥(Sulkavan vankila)	개방형	
윌리토르미오 감옥(Ylitormion vankila)	개방형	

〈표 1〉 핀란드 교도소

## 2 지역사회제재 센터

지역사회제재 센터의 임무는 해당 지역의 지역제재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다. 또한 일부 지역제재 센터는 재판 절차상 필요한 보고서와 집행 계획을 준비한다. 많은 지역사회제재 센터는 지역제재 집행의 일부로 동기 부여 토론이나 인지행동 프로그램 등을 마련한다. 그들의 목표는 고객의 대처 능력을 향상시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사회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다. 감독 순찰 업무는 모든 지역제재 센터에서 수행된다. 순찰은 지역사회제재 조치가 완전하게 시행되도록 강제하고, 고객이 중독물질의 영향 없이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 있도록 관리한다<sup>10)</sup>.

10) Rikosseuraamuslaitos, (2015. 12. 31), <http://www.rikosseuraamus.fi/en/index/units/communitysanctionsoffices.html> (검색일 : 2017. 6. 3).

## 3 집행부

형사제재본부의 집행부는 교도소 직원들과 함께 미결수용과 기결수용, 감시형, 노역형의 공적 집행을 담당한다. 집행부는 사법행정 당국으로부터 서류를 받아, 판결의 집행 가능성을 확인한 후 집행한다. 집행부는 집행을 피하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한 영장을 발급하고 집행 기록을 유지한다. 집행부의 집행을 통해 담당자들은 결정된 형기가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부서의 책임자는 형기 재조정에 관한 의견을 결정한다. 집행부의 본부는 투르꾸(Turku)에 있으며 다른 사무소는 꾸오페오(Kuopio), 오울루(Oulu), 반따(Vanta)에 있다<sup>11)</sup>.

## 4 건강보전 서비스

핀란드에는 1개의 치료감호소(Hämeenlinna)와 2개의 정신병원(Turku, Vankaa)이 수형자의 치료를 담당한다. 2016년 1월 1일부터 수형자들에 대한 건강관리부(Vankitereydenhuollon yksikkö, VTH)는 보건사회부(Sosiaali- ja Terveysministeriö) 산하 국립보건복지연구소(Terveiden ja hyvinvoinnin laitos, THL) 아래로 이관되었다<sup>12)</sup>.

## 5 형사제재 훈련센터(연수원)

형사제재 훈련센터(Aikosseuraamusalan koulutuskeskus)는 1976년에 설립된 형사제재본부 산하기관이다. 훈련센터는 형법과 관련된 교육과정과 직업교육, 그리고 보충교육을 제공한다. 훈련센터는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형사 사법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직업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고 직업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과 범죄를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하는 데 앞장선다. 훈련센터는 북유럽 국가들의 형사제재분야의 정보를 제공하고, 형사제재훈련과 관련된 국제적인 협력에 체계적으로 참여한다<sup>13)</sup>.

## 6 도서관

국립 범죄학 도서관은 반따(Vantaa)의 형사제재 훈련센터 안에 위치해 있다. 형사소송담당자, 학생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도서관은 범죄학과 관련된 책, 잡지 그리고 필름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배치하고 있고, 범죄 예방, 형의 집행, 교정 행정 그리고 범죄 피해자와 희생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서관은 약 2만여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sup>14)</sup>.

11) Rikosseuraamuslaitos, (2016. 5. 25), <http://www.rikosseuraamus.fi/en/index/units/enforcementunit.html>(검색일 : 2017. 6. 3).

12) <http://www.rikosseuraamus.fi/fi/index/toimipaikatjajyhteystiedot/terveydenhuoltoyksikko.html>(검색일 : 2017. 6.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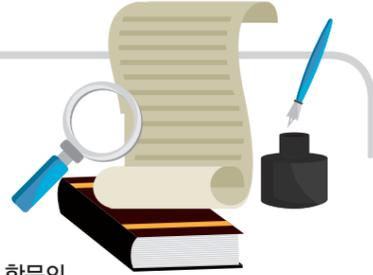
13) <http://www.rskk.fi/fi/>(검색일 : 2017. 6. 3).

14) Rikosseuraamuslaitos, (2016. 4. 7.), <http://www.rikosseuraamus.fi/fi/index/toimipaikatjajyhteystiedot/kirjasto-jatietopalvelu.html>(검색일 : 2017. 6. 3).

## 교정학

## 지상강좌

교정학은 교화개선 및 교정행정과 관련된 일련의 문제들을 이론적·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으로, 사회학과 심리학, 정신의학 등 관련 학문의 종합적 응용이 요구되는 분야다. '지상강좌' 코너를 통해 교정학 관련 문제를 풀어보자.



## 1. 다음 중 현행법령상 분류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 수형자에 대한 개별처우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분류심사를 하여야 한다.
- ㉡ 분류심사를 위하여 심리·지능·적성검사 그 밖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 ㉢ 기본수용급에서 청년수형자는 23세 이상의 자이다.
- ㉣ 분류심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 분류심사는 수형자의 형기에 관계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 ㉥ 기본수용급에서 장기수형자는 15년 이상의 형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
- ㉦ 기본수용급에서 노인수형자는 65세 이상인 자를 의미한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 ㉠ 기본수용급에서 청년수형자는 23세 미만의 자이다.
- ㉡ 분류심사는 수형자의 형기와 관계가 있다.
- ㉢ 기본수용급에서 장기수형자는 10년 이상의 형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

정답 ②

## 2. 현행법령상 수형자에 대해 부정기로 재심사할 수 있는 사유로 옳은 것은?

- ① 규율을 위반하여 조사 또는 징벌하기로 의결한 때
- ② 수형자가 집행유예가 취소 또는 실효된 때
- ③ 학위취득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때
- ④ 가석방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때

- ① 징벌하기로 의결한 때에만 해당된다.
- ② 실효된 때에만 해당된다.
- ④ 가석방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때는 규칙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정답 ③

## 3. 다음 중 징역 12년, 금고 8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수형자가 정기재심사를 받게 되는 때가 아닌 것은?

- ① 형기가 6년 8개월에 도달한 때
- ② 형기가 10년에 도달한 때
- ③ 형기가 13년 4개월에 도달한 때
- ④ 형기가 16년에 도달한 때

합산한 형기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를 20년으로 본다.

$20년 \times 12개월 = 240개월 \times 1/3 = 80개월 = 6년 8개월$

$20년 \times 12개월 = 240개월 \times 1/2 = 120개월 = 10년$

$20년 \times 12개월 = 240개월 \times 2/3 = 160개월 = 13년 4개월$

$20년 \times 12개월 = 240개월 \times 5/6 = 200개월 = 16년 8개월$

- 기본적으로 6개월 경과되어야 한다.

정답 ④

## 4. 다음 중 분류심사제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 ① 금고형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집행할 형기가 형집행지휘서 접수일부터 3개월 미만인 사람
- ② 징역형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집행할 형기가 형집행지휘서 접수일부터 3개월 미만인 사람
- ③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
- ④ 구류형이 확정된 사람

규칙개정으로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은 제외대상에서 삭제되었다. 즉 분류처우 대상에 포함된다.

정답 ③

## 5. 다음 중 수형자의 분류검사에 대한 규정으로 거리가 먼 것은?

- ① 소장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수형자의 인성, 지능, 적성 등의 특성을 측정·진단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인성검사는 신입심사 대상자 및 그 밖에 처우상 필요한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분류심사가 유예된 때와 그 밖에 인성검사가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인성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이해력의 현저한 부족 등으로 인하여 인성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담내용과 관련서류를 토대로 인성을 판정하여 경비처우급 분류지표를 결정할 수 있다.
- ④ 인성 및 적성 검사는 신입심사 대상자로서 집행할 형기가 형집행지휘서 접수일부터 1년 이상이고 나이가 35세 이하인 경우에 한다. 다만, 직업훈련 또는 그 밖의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지능 및 적성 검사는 신입심사 대상자로서 집행할 형기가 형집행지휘서 접수일부터 1년 이상이고 나이가 35세 이하인 경우에 한다. 다만, 직업훈련 또는 그 밖의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정답 ④

# 교정본부 NEWS

더 많은 교정본부 소식은 교정본부 홈페이지(www.correction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05

May 2018 Vol. 504

### 교정본부장, 제주교도소 정책현장 방문

김학성 교정본부장은 지난 4월 5일 제주교도소 교정위원 간담회를 주재하고 6일 제주교도소를 방문해 정책현장을 점검하였다. 김학성 교정본부장은 교정위원 간담회에서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헌신해온 교정위원의 노고를 치하하였으며 제주교도소 정책현장에서는 주요정책과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직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 근무자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 교정본부장, 포항교도소·대구구치소 정책현장 방문

김학성 교정본부장은 지난 4월 19일 포항교도소를 방문해 정책현장을 점검하고 교정위원 간담회를 주재하였으며 20일에는 대구구치소를 방문해 정책현장을 점검하였다. 김학성 교정본부장은 정책현장에서 직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 근무자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교정위원 간담회에서는 수용자 교화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 개최

지난 4월 23일 차관 회의실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금로 법무부 차관(위원장), 김학성 교정본부장 등 9명(내부 4, 외부 5)이 참석한 가운데, 567명의 심사가 이루어졌다. 가석방 적격자는 539명(소년수 미포함)으로 4월 30일 가석방이 시행되었다.

### 제5차 심리치료중앙자문위원회 개최

지난 4월 26일 교정본부 회의실에서 제5차 심리치료중앙자문위원회가 개최되었다. 경기대 이백철 교수(위원장) 등 8명이 참석하였으며, 2017년에 개발된 심리치료 효과성 평가도구 관련 자문과 여성수형자 심리치료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2018년도 수형자 지방기능경기대회 참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등 19개 기관 총 110명의 수형자가 지난 4월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진행된 기능경기대회에 참가했다. 금상 23명, 은상 18명, 동상 15명, 우수상 12명 등 총 68명이 입상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지방기능경기대회는 기능인의 사기를 북돋고 근로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심신의 건전화 및 기술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다.

### 근무복 개선 관련 직원설명회 개최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4일까지 지방교정청을 포함한 56개 전 교정기관에서 근무복 개선 관련 직원설명회가 개최되었다. 권역별 설명회 진행요원 1~2명이 전국 각 기관을 방문하였으며 착용 시연 후 개선 내용에 대한 상세 설명과 선호도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렴한 직원 의견을 향후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 집중인성교육 실무자 워크숍 개최

지난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청송 대명리조트에서 집중인성교육 발전방향 모색 및 관계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집중인성교육 실무자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이날 워크숍에는 교정본부 사회복귀과장 및 진행요원 5명, 지방청 교육업무담당자 4명과 일선기관 집중인성교육 담당자 56명 등 총 65명이 참석했다.

### 2018년도 교정직 6급(교감) 승진시험

지난 4월 28일 각 지방교정청에서 2018년 교정직 6급(교감) 승진시험이 치러졌다. 이번 승진시험의 선발인원은 서울청 30명, 대구청 41명, 대전청 18명, 광주청 14명으로 총 103명이었으며, 지원자는 서울청 153명, 대구청 121명, 대전청 64명, 광주청 81명으로 총 419명을 기록했다. 승진예정자 교육은 5월 21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 서울지방교정청

### 서울지방교정청 / 교위 서지선

#### 공문서 바로 쓰기 교육 실시

서울지방교정청은 4월 2일 대회의실에서 공직자의 공문서 바로 쓰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국립국어원 연구사를 초빙, 관계 법령 및 공문서 작성 원칙을 내용으로 하였으며, 많은 직원의 호응 속에 업무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 서울구치소 / 교도 변우관

#### 식목일 맞이 행사 실시

서울구치소는 4월 9일 제73회 식목일을 맞아 직원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아름다운 직장 만들기 행사를 진행했다. 서울구치소에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교정의 밝은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 교정시설 내 꽃·나무 심기, 가지치기 등을 실시하였다.

### 안양교도소 / 교도 김희락

#### 벚꽃길 개방행사 개최

안양교도소는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교도소 외부정문에서부터 약 200m의 교정으로 벚꽃길을 민원인 및 지역주민이 관람하고 즐길 수 있도록 개방했으며, 작가의 후원을 받은 미술작품 10여 점과 수형자들이 직접 만든 도자기 등 교도작업제품 20여 점을 전시 및 판매하였다.

### 수원구치소 / 교사 유동경

#### 소망갤러리 봄의 향기展 개최

수원구치소는 3월 26일부터 6개월간 민원봉사실 내에 마련된 문화 공간인 소망갤러리에 국립현대미술관으로부터 미술작품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봄의 향기展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구치소를 방문하는 수용자 가족에게 잠시나마 마음의 평온과 위로를 전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서울구치소

### 서울동부구치소 / 교사 최재완

#### 교도관 호신술 전문지도자 교육 실시

서울동부구치소는 직원들의 신체단련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장교육으로 교도관 호신술 전문지도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세계호신권법연맹과의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4월 매주 2회 서울 동부구치소 연무관에서 진행된 호신술 교육은 업무 중 일어날 수 있는 위급상황에 대처하고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직장교육으로 직원의 만족도 또한 높았다.

### 인천구치소 / 교사 강호철

#### 직원 금연클리닉 실시

인천구치소는 3월 7일부터 4월 4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총 5회에 걸쳐 직원 금연클리닉을 실시하였다. 이번 금연클리닉은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직원들의 금연 실천을 높이고 건강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남부 보건소와 협조해 실시하였다.

### 서울남부구치소 / 교사 오정동

#### 자살예방 지킴이 교육 실시

서울남부구치소는 4월 10일 청사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지킴이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구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자살에 대한 위험징후 포착, 자살예방에 대한 활동 전략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되었다.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 교위 권오일

#### 사랑과 희망을 담은 자장면 데이 개최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4월 4일 교정협의회 기독교분과위원회 후원으로 전 수용자들에게 자장면 한 그릇에 맞난 행복을 전하는 사랑의 자장면 데이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행사는 자장면 한그릇에 사랑과 행복을 담아 수용생활에 지쳐있는 수용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안양교도소

### 의정부교도소 / 교도 김주용

#### 퇴직 선배 교정공무원 초청행사 실시

의정부교도소는 4월 12일 퇴직 선배 교도관들을 초청하여 시설을 둘러보고 후배들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행사를 실시하였다. 선배 교정 공무원들은 첨단경비시설과 과학적인 재범방지 프로그램에 높은 관심을 보였고, 행사 후 후배 직원들과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며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 여주교도소 / 교사 송재훈

#### 식목일 맞이 나무심기 행사 실시

여주교도소는 4월 3일, 제73회 식목일을 맞아 여주교도소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아름다운 여주교도소 만들기의 일환으로 산림자원의 소중함과 식목일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되었다.

### 서울남부교도소 / 교사 명수환

#### 식목일 맞이 조경 수목 환경정비 행사 실시

서울남부교도소는 4월 5일 제73회 식목일을 맞아 조경수목 주변환경을 정비하고, 수목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시비(施肥)를 실시하였다. 겨우내 쌓였던 낙엽을 제거하고 교정시설 주변을 대청소하는 등 직원 모두가 깨끗한 교정시설을 만들기 위해 참여했다.

### 춘천교도소 / 교사 김민구

#### 직원화합 소내풋살리그전 개최

춘천교도소는 4월 2일 직원 화합을 위한 소내풋살리그전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직원 상호 간 소통과 화합을 통해 화목하고 행복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고자 실시되었으며 부서별로 팀을 나누어 풋살리그전을 진행하고 우승팀을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의정부교도소

## NEWS

### 원주교도소 / 교사 천병훈

#### 서원중학교 학생 준법교실 및 참관 실시

원주교도소는 4월 5일 황성 서원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보라미 준법교실과 참관을 실시하였다. 이날 준법교실에서는 교정홍보영상시청, 교정직공무원 소개 교육 및 기관 참관을 진행하였다. 참가한 학생들은 법의 중요성을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 강릉교도소 / 교감 김이수

#### 사랑의 꽃 심기 행사 실시

강릉교도소는 지난 3월 26일 보라미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교정협의회 회원들과 모범수형자들이 함께한 환경정화 작업 및 사랑의 꽃 심기 행사를 실시하였다. 보라미 봉사단은 다락습지학습원 주변 환경정화 작업과 함께 강릉시청에서 지원받은 봄꽃 400본을

해오름 체육공원 및 교도소 진입로 주위에 심어 화단을 조성하였다.

### 영월교도소 / 교사 손동규

#### 식목 행사 및 주변 환경정리 실시

영월교도소는 지난 4월 5일, 약 30여 명의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대추나무, 자두나무, 철쭉 등 나무 130그루를 식재하는 식목일 행사를 실시하였다. 아름다운 교정기관 만들기 계획 중 하나로 실시된 이번 기념행사는 영월군청으로부터 지원받은 나무를 교도소 구내외에 식재하고, 주변 환경정리를 실시하였다.

###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 교사 정원기

#### 식목일 기념 식목행사 실시

수원구치소 평택지소는 식목일을 기념하여 4월 6일, 전 직원이 참여하는 식목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식목행사는 외부정문 옆 화단에 뽕나무를 식수하고, 청사 및 민원실 주변에 다양한 종류의 꽃을 심어 정경 등을 위하여 평택지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교정기관의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소망교도소 / 배현승

#### 2018 춘계 직원 체육행사 실시

소망교도소는 4월 26일 2018년 춘계 직원 체육행사를 실시하였다. 직원 및 직원가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낭만 가득한 남한강 자전거길을 따라 자전거 트래킹을 실시하였으며, 이번 체육행사를 통해 체력 증진 및 스트레스 해소와 친목도모로 활기찬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 직원 상호 간 화합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 NEWS

## 대구지방교정청

### 대구지방교정청 / 교위 김상수

#### 소속기관장 회의 개최

대구지방교정청은 4월 5일과 4월 10일 양일에 걸쳐 권역별(대구·경북 / 부산·경남) 소속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교정정책 비전 및 소속기관 수범사례에 대한 정보공유, 기관 운영상 문제점, 성취목표 달성 방안 등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 대구교도소 / 교위 김재현

#### 대구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 참관

대구교도소는 4월 5일 대구지방검찰청 1차장검사 김형길 등 9명의 형집행정지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하였다. 이날 참관은 대구교도소의 의료현황, 중증환자 수용 실태 및 신속한 형집행정지의 필요성에 대한 브리핑과 시설 참관 후 관련 직원들과의 질의 및 응답 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 부산구치소 / 교사 박창훈

#### 2018년 제1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개최

부산구치소는 3월 22일 오후 2시부터 출소예정자 12명을 대상으로 외부기업체 6곳, 유관기관 5곳이 참여하는 '2018년 제1회 출소예정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서 출소예정자들은 ㈜동신제지 등 6개 구인업체와 1대1 면접을 통하여 6건의 채용의뢰서를 작성하였다. 사상구청,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은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출소 후 취업은 물론 신용회복에 대한 수용자들의 궁금증을 풀어 주었다.

### 경북북부제교도소 / 교사 김남규

#### 안동 삼성연합안과 업무협약 체결

경북북부제교도소는 4월 11일 경북 안동시 소재 안동 삼성연합안과와 수용자들의 안질환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수용자들은 초빙진료로 조기발견이 어려운 백내장과 녹내장 등에 대한 적시 발견 및 치료가 가능해졌고, 교도소 측은 진단서 발급 등에 관한 행정 편의를 제공받게 된다.

### 창원교도소 / 교도 박혜민

#### 벚꽃길 개방 행사 개최

창원교도소에서는 4월 2일부터 6일까지 봄을 맞이하여 벚꽃길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고 주변 환경을 정리하는 등 새봄맞이 행사를 진행하였다. 4월 3일에는 식목행사로 사과대추나무 25주를 식재하였

으며 4월 5일에는 전 직원이 참여하여 창원교도소 주변 삼호천을 정화하는 행사를 가졌다.

### 부산교도소 / 교사 강민승

#### 청렴한 길 조성으로 청렴 실천 결의

부산교도소는 3월 28일 식목일을 맞아 대저동 지역 주민 및 주민센터 등 유관기관과 함께 교도소 진입로 주변에 청렴한 길 조성 행사를 실시하였다. 부산시 및 강서구청으로부터 지원받은 철쭉 3,000여주를 식재하면서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 포항교도소 / 교사 권대희

#### 제73회 식목일 행사 개최

포항교도소는 4월 3일 식목일을 기념한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직원들이 직접 나무를 심고 가꾸는 분위기 확산을 통해 소중한 자연을 느끼고 산림자원을 조성하여 직원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이 행복해질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해 진행됐다.

## 대구지방교정청

### 진주교도소 / 교위 성태현

#### 공무원행동강령 및 반부패·청렴실천 결의대회 실시

진주교도소는 4월 2일 소내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공무원행동강령 및 반부패·청렴실천 결의대회'를 가지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하는 데에 강한 의지를 두고 '부정청탁금지법' 준수를 통한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사례 제로화를 위해 개최되었다.

### 대구구치소 / 교사 광명재

#### 교정위원·수형자 장애인 봉사활동 실시

대구구치소 수형자 7명과 구치소 봉사단체 교정협의회 10명이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4월 23일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대구시 수성구 파동 소재 사회복지법인 애망원을 찾아 중증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돕는 뜻깊은 사회봉사활동을 가졌다.

### 경북직업훈련교도소 / 교도 조진호

####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

경북직업훈련교도소는 지난 4월 4일부터 9일까지 열린 '2018년 경북지방기능경기대회'에 미장, 헤어디자인, 용접 등 3개 부문에 수형자 9명이 참가하여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 우수상 1개를 획득하는 성적을 거뒀다.

### 안동교도소 / 교도 양승명

#### 2018년 경북기능경기대회 수형자·직원 동시입상 쾌거

안동교도소는 4월 4일부터 7일까지 상주공업고등학교에서 열린 '2018년도 경상북도기능경기대회' 실내장식 부문에 수형자 1명, 소속직원 2명이 참가하여 금·은·동상을 휩쓰는 쾌거를 달성하였다. 이번 성과는 안동교도소가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 결과로 평가받았다.



대구교도소

### 경북북부제2교도소 / 교도 심상현

#### 진보중학교 교정장학금 전달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3월 23일 청송군 진보면 진보중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 전달 행사는 경북북부제2교도소 교정장학회 활동의 일환으로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 그 뜻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 김천소년교도소 / 교위 김기연

#### 소년수용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김천소년교도소는 4월 17일 한국교정상담심리학회와 소년수용자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날 두 기관은 소년수용자의 내면적인 인생변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지원 등 소년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지원을 위한 유기적인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상호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 경북북부제3교도소 / 교도 이우성

#### 수용자 교화를 위한 봄맞이 음악회 실시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4월 13일 소내 대강당에서 전체 수용자를 대상으로 가수 최성수 씨와 함께하는 봄맞이 음악회를 열었다. 이번 음악회는 수용자들이 수용생활을 하는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서순화를 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되었다.

### 울산구치소 / 교사 차석호

#### 울산지방법원장 울산구치소 참관

최인석 울산지방법원장은 4월 2일 서경희 수석부장판사 등 판사 10명과 함께 울산지역의 유일한 교정시설인 울산구치소를 참관하였다. 법원장 일행은 울산구치소를 방문해 수용동, 통제실, 접견실, 가족만남의 집을 참관하고 현황 설명 등을 청취하였다.



부산교도소

### 경주교도소 / 교위 박상진

#### 교정위원 위촉장 전수 및 참관 실시

경주교도소는 4월 4일 신규 위촉된 교정위원 4명에게 법무부장관 위촉장을 전수하고 시설 참관을 실시하였다. 경주교도소 교정위원은 총 70여 명의 외부인사로 위촉되었으며 분야별로 수용자 상담 및 결연활동과 인성교육, 취업·창업 알선 및 출소 후 사회적 지원 등 수용자 교정·교화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통영구치소 / 교위 조정훈

#### 국립통영검역소장 초청 강연 개최

통영구치소는 4월 2일 직원교육실에서 박일훈 국립통영검역소장을 초청하여 '감염병 예방'을 주제로 강연을 개최하였다. 수용자 건강관리와 직원들의 업무능력향상을 위해 마련된 이날 강연은 감염병에 대한 다양한 지식 제공과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감염관리 및 의심 환자 발생시 대응체계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다.

### 밀양구치소 / 교사 이상협

#### 식목일 행사 개최

밀양구치소는 식목일을 맞아 4월 4일 아름다운 교정환경만들기의 일환으로 교정시설 내 나무심기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식목일 행사로 민원인주차장 주변에 빛나무 60여 그루를 식재하는 등 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상주교도소 / 교위 임대욱

#### 달팽이 봉사단 장학금 전달

상주교도소 달팽이 봉사단은 3월 20일 상주시 소재에 있는 사별초등학교 3명, 사별중학교 3명 등 6명에게 12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장학금 수여 대상 학생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성적우수 학생과 선행 또는 효행 학생, 그리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되었다.



통영구치소

## NEWS

## 대전지방교정청

### 대전지방교정청 / 교위 김형석

#### 이달의 모범교도관 등 시상식 개최

대전지방교정청은 3월 29일 대회의실에서 이달의 모범교도관 및 교정사교 방치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대전교도소 교위 강익현 등 11명이 모범교도관으로, 부정물품 반입을 차단한 공주교도소 교도 김권형이 교정사교 방치 유공으로 표창을 수상하였다.

### 대전교도소 / 교위 하봉문

#### 법무부장관 대전교도소 정책현장 방문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4월 11일 과밀수용 및 노후 교정시설 실태 확인을 위해 대전교도소 정책현장을 방문하였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혈액투석실 등을 점검하고, 무료법률상담 중인 공익법무관과 환담하였으며, 수형자 의료처우 향상과 교정교화를 위해 수고해 온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 청주교도소 / 교사 김재덕

#### 희심길 봉사단 청천재활원 방문

청주교도소는 3월 24일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인 청천재활원을 찾아 봉사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번 봉사활동은 직원들로 구성된 '희심길 봉사단' 회원 20명이 참여하였으며, 중증장애인요양시설인 청천재활원을 찾아 패비날하우스 철거 및 재활원 주변 환경미화작업을 진행하였고, 준비한 생활용품을 전달함으로써 지역사회 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 천안교도소 / 교사 이희성

#### 재천안 교정동우회 참관

천안교도소는 4월 3일 재천안 교정동우회 회장 등 교정공무원 선배 8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하였다. 퇴직한 선배들에게 첨단화된 교정 행정, 천안교



대전지방교정청

## NEWS

도소 현황, 수용자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및 수용자의 처우 등을 소개한 후 구내로 이동하여 참관을 실시하였다.

### 청주여자교도소 / 교사 김은정

#### 식목일 맞이 식목행사 개최

청주여자교도소는 4월 3일 제73회 식목일을 앞두고 주점속 소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식목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식목일을 맞아 수목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존하고, 아름다운 교정시설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 공주교도소 / 교위 김중욱

#### 식목일 행사 개최

공주교도소는 4월 6일 제73회 식목일을 맞이하여 자체 식목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식목행사는 원래 예정되었던 4월 5일에서 기상관계로 하루 연기하여 시행하였다. 필수 근무자를 제외한 공주교도소 전 직원이 참여하여 구내 청사 주변 화단과 외부정문 앞은 행나무길 잡목제거 및 비료작업과 환경미화, 잡목제거 작업을 시행하였다.

### 충주구치소 / 교위 조만택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장 시찰

정천우 충주지방법원 충주지원장 등 13명은 4월 9일 충주구치소에 방문하여 교정현장의 이해 증진과 인권익식 함양을 위한 시찰을 진행하였다.

### 홍성교도소 / 교도 김영선

#### 식목일 행사 개최

홍성교도소 직원들은 4월 5일 제73회 식목일을 맞이하여 철쭉 700주를 구내 및 청사 주변에 식재하는 식목행사를 개최하였다. 홍성교도소는 이번 식목행사



청주여자교도소

를 통한 구내·외 환경개선으로 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교정행정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천안개방교도소 / 교도 하대웅

#### 1사 1촌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 실시

천안개방교도소는 4월 16일 최근 일손이 부족한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소재의 과수원 농가를 방문하여 배꽃 화집 작업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날 봉사활동은 최근 일손이 부족해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생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다.

###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 교도 유제영

#### 사랑의 장학금 및 장학증서 수여

홍성교도소 서산지소는 3월 28일 성연면에 위치한 성연중학교 학생 중 성실한 학교생활로 타의 모범이 되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2명의 학생에게 장학증서 및 사랑의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미래의 꿈나무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1년간 전 직원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다해 모은 사랑의 장학금 총 480만 원이 지원됐다.

###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 교사 정연호

#### 접견실 화단 조성 행사 실시

대전교도소 논산지소는 4월 12일 봄철을 맞이하여 접견실 주변에 화단을 조성하는 행사를 실시했다. 접견실, 민원실, 직원탈의실 앞에 메리골드, 야생 카네이션 꽃을 식재함으로써 소내 근무환경 개선 및 교정기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 광주지방교정청

## NEWS

### 광주지방교정청 / 교위 최규철

#### 정치적 중립 준수 의무 교육 실시

광주지방교정청은 4월 2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 의무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선거 개입 등 불법적 선거 관련 행위를 예방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 광주교도소 / 교사 김명규

#### 직원 복지 위해 킴덤치과와 업무협약 체결

광주교도소는 3월 23일 소내 회의실에서 광주광역시 봉선동에 위치한 킴덤치과와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협약을 통하여 양 기관은 임직원 및 가족들에 대하여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 전주교도소 / 교사 김용희

#### 전 직원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전주교도소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4월 10일 소내 대강당에서 성희롱 예방교육 전문 강사를 초빙해 건강한 직장분위기 조성 및 성희롱 및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앞으로도 전주교도소는 인격이 존중되고 차별 없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 순천교도소 / 교사 방상용

#### 전남지방기능경기대회 참가

순천교도소는 4월 4일 순천교도소에서 개최된 '2018년도 전남지방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실내장식, 미장 종목에서 금·은·동메달 및 우수상을 휩쓰는 쾌거를 거뒀다.

### 목포교도소 / 교사 이정균

#### 목포세관 직원 참관 실시

목포교도소는 지난 4월 16일 유관기관인 목포세관직원 10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 참석자들은 교정행정 동영상 시청 등 기관 현황을 소개받은 후 수용거실 및 작업장 등 구내의 시설을 견학했다.

### 군산교도소 / 교사 정임택

#### 정기 인사이동 관련 직원 친선도모 체육행사 개최

4월 11일 군산교도소 내 구 경비교도대 운동장에서 2018년도 정기인사이동 관련 직원 친선도모 체육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체육대회는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직원 간 결속력을 공고히 다짐으로써 보다 화합된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제주교도소 / 교사 홍지호

#### 교정위원 간담회 개최

제주교도소는 지난 4월 5일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헌신해 온 교정위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교정위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에 김학성 교정본부장이 참석하여 교정위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앞으로도 수용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길 당부하였다.

### 장흥교도소 / 교위 송판근

#### 이동금연클리닉 실시

장흥교도소는 4월 10일 장흥군 보건소의 협조로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 등록을 실시하였다. 이동금연클리닉은 6개월 과정으로, 2주에 한 번씩 보건소 직원이 출장을 와서 일산화탄소·폐활량 측정, 금연보조제 등을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총 13명이 등록했다.

### 해남교도소 / 교도 조기호

#### 웃음치료 교육 실시

해남교도소는 4월 2일 외부강사를 초빙해 '웃음치료 교육'을 가졌다. 이날 교육은 스트레칭, 체조 등을 하며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직원 간 소통과 공감으로 활기찬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 나아가 행복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 마련하였다.

### 정읍교도소 / 교사 안하욱

#### 격무직원의 스트레스 해소 위한 힐링데이 실시

정읍교도소는 3월 30일 행복한 직장 만들기 사업 중 하나로 1분기 격무 직원을 선정하여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힐링데이 행사를 개최하였다. 대상으로 선정된 직원들은 이날 업무에 대한 부담을 지운 채, 봄바람 속에서 그간의 스트레스를 훌훌 털어냈다. 밝은 모습으로 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업무로 인해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받고 돌아와 다시 활기찬 직장 생활을 이어갔다. 힐링데이 프로그램은 사색의 시간, 수다의 시간, 문화 활동의 시간 등으로 구성되었다.



전주교도소



해남교도소



정읍교도소

## 교정공제회

## 국군교도소

### 교정공제회 · 산림조합중앙회 업무협약 체결

교정공제회와 산림조합중앙회는 4월 18일 산림조합중앙회에서 교정공제회가 보유하고 있는 장흥 교정복지림 가치 제고 등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장흥 교정복지림은 향후 산림조합중앙회에서 5년간 위탁관리 될 예정이다.



### 교정협의회 수용자 카네이션 만들기 행사 실시

국군교도소는 5월 1일 교도소 내 종합성전에서 교정협의회 주관으로 '카네이션 만들기' 행사를 실시했다. 수용자들은 행사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미안함과 고마움을 직접 가족들에게 표현할 수 있었다.



1분기 우수직원들을 소개합니다

<p><b>서울지방교정청</b> 교위 이수진</p> <p><b>온누리상품권 구매 방식 개선 및 국가예산 적정 집행</b></p> <p>맞춤형 복지 온누리상품권 의무구매 비율이 상향된 가운데 기관구매로의 구매 방식을 개인 및 기관 병행구매로 변경하는 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각종 수당지급의 적정성을 세밀하게 점검하여 국가예산의 적정집행에도 기여한 바가 크다.</p>	서울	<p><b>부산구치소</b> 공업주사 김동주</p> <p><b>지역사회 봉사를 통한 교정공무원 이미지 향상</b></p> <p>2000년부터 보냉가설봉사단 부산·경남지회 회원으로 재능기부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소외계층, 국가유공자, 독거노인 등을 위해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교정공무원의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였다.</p>	대구
<p><b>대구교도소</b> 교위 성경모</p> <p><b>원활한 형집행 업무 수행 및 교정사고 예방</b></p> <p>조사실 근무 시 사안이 중대한 수용자 관련 사건을 검찰청에 추가기소하여 수용자들로 하여금 준법질서 실천 및 법질서 확립에 기여하였으며, 수용자의 소지품 검사 과정에서 위험한 소지품을 미리 발견해 교정사고를 방지하는 데 기여하였다.</p>	대구	<p><b>대전교도소</b> 교위 황명호</p> <p><b>활발한 교정정책 연구 및 교정기관 대외 신인도 향상</b></p> <p>활발한 교정정책 연구를 통해 교정행정 발전에 이바지하였으며 적극적인 업무 자세를 통해 교정기관이 주도가 되어 국제범죄예방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등 교정기관의 대외 신인도 향상에 기여하였다.</p>	대전
<p><b>군산교도소</b> 교위 김석우</p> <p><b>지역사회 나눔 실천 및 직장의 인화단결 도모</b></p> <p>꾸준한 헌혈봉사와 골수기증을 통해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하였다. 또한 매사에 긍정적인 자세로 솔선수범하며 부서 내 밝은 분위기 조성에 힘쓰는 등 직장의 인화단결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였다.</p>	광주		

# 가족과 함께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월간 <교정> 5월호 교정스타그램에서는 늘 가족을 향한 애뜻한 마음으로 일상에서 '가족'의 에너지를 체험하는 교정공무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고 체험으로 간직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가족애를 함께 공유해 보세요.

11:11 100%

### 드디어 가족 여행

교위 김재현 대구교도소

항상 밝은 우리 가족! 손꼽아 기다린 베트남 여행인 만큼 기쁨도 두배~ 모두의 얼굴에 햇살이 가득!

11:11 100%

### 아버지에게 배웠던 낚시를 아들과 함께

교사 공준현 대구교도소

고요한 석양 속 잔잔한 물결에 드리워진 낚시대. 아들에게도 고요함 속의 인생의 의미를 가르치기 위해 세월을 낚고 있습니다.

#### 교정 스타그램에 참여해주세요.

교정 스타그램은 <교정>을 아끼는 교정공무원과 독자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집니다. 매 호 정해진 주제에 어울리는 사진과 짧은 문구를 메일로 보내주시면 지면을 통해 소개해드리며 기프트콘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월의 테마 컬러는 'YELLOW', 주제는 '희망'입니다」

'희망'이라는 주제와 어울리는 사진(1MB 이상)과 사연을 보내주세요.

신청 : correct2015@naver.com (문의 : 02-2110-3461) / 소속, 직급, 이름, 휴대폰 번호 必

11:11 100%

### 딸과 함께 산책 중

교사 김용희 전주교도소

우리 딸이 제일 기다리는 시간! 아빠와 함께 집 앞 호수공원에서 킥보드 타는 토요일 오후^^

11:11 100%

### 곧 태어날 우리 아들

교사 이상현 밀양구치소

바쁜 업무로 매일매일 힘들 때도 많지만 곧 태어날 우리 아들 사진을 보면 저도 모르게 흐뭇한 미소가 입가에 걸리곤 합니다.

11:11 100%

### 쌍둥이의 에너지

교사 이원규 부산교도소

쌍둥이 아들과 주말마다 외출을 하는데, 해맑게 웃으며 뛰어 노는 모습을 보면 힐링 그 이상을 느낍니다.

11:11 100%

### 함께 있으면 즐거운 우리 가족

교도 하대웅 천안개방교도소

결혼한지는 1년 되었지만, 알고 지낸 세월은 17년이 된 우리 가족

11:11 100%

### 아내와 함께한 봄날의 하루

교도 하현중 창원교도소

지친 마음을 힐링하러 아내와 함께 광양 청매실 농원에 다녀왔습니다. 교정 가족 여러분들도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1:11 100%

### 행복이 쑥쑥 사랑스런 우리 아이들

공업주사보 김동권 순천교도소

힘들었던 출근길에 너희들이 아빠에게 '파이팅'하고 외쳐줘서 조금도 힘든 줄 모르겠구나! 고맙고 사랑해... ^^

# 이달의 공연

무엇을 해도 즐겁고, 어디를 가도 눈부신 계절. 문화 소식도 더욱 다채롭고 풍성하다.  
보는 것만으로도, 듣는 것만으로도 향기로운 공연과 전시들! 이 봄날 마음껏 문화를 누리보자.



## 마르크 샤갈 특별전 - 영원의 정원展

기간: 2018년 4월 28일~8월 18일까지  
장소: M컨템포러리

우리에게 친숙하고 정감가는 작가, 마르크 샤갈. 그의 작품들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는 꽃, 연인, 신랑 신부, 동물, 마을 등 우리 주변의 일상적인 존재들이다. 하지만 이 소재들은 초현실적이면서도 서정적인 그만의 독창적인 표현 방식으로 깨어났다. 이번 전시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개최된 샤갈 관련 전시 중 가장 많은 작품을 볼 수 있는 기회다. 특히 그동안 국내에서 쉽게 접하지 못한 작품을 포함, 샤갈의 인생을 총망라하는 엄선작들과 인터랙티브 존을 통해 그의 회로애력이 담긴 '영원의 정원'을 함께 할 수 있다.



## 비커밍맘

기간: 2018년 5월 25일~5월 27일  
장소: 강동아트센터 대극장 한강

2014년 초연해 현재까지 객석점유율 80%, 누적 관객 3만 명의 기록을 세운 대한민국 창작 뮤지컬의 대표 아이콘, '비커밍맘'. 엄마와 아빠가 되어가는 280일간의 여정을 그린 가족 공감 뮤지컬인 '비커밍맘'은 수채화처럼 맑고 따뜻한 감성의 멜로디와 대한민국 실력과 뮤지컬 배우 6인이 펼치는 환상적인 무대를 연출한다. 연애와 결혼, 그리고 엄마와 아빠가 되어가는 주인공들의 좌충우돌 스토리와 함께 하다보면 때론 웃음을, 때론 눈물을 짓게 될 수밖에 없다. 온가족이 함께 '비커밍맘'이 전하는 리얼 스토리를 경험해보자.



## Weather: 오늘, 당신의 날씨는 어떤가요?展

기간: 2018년 5월 28일~10월 28일  
장소: 디뮤지엄

날씨는 그리스 신화의 천동번개, 19세기 영국 소설 속 폭풍우, 대중가요 가사에 이르기까지 끊임 없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거치며 오랫동안 예술, 문학, 철학, 패션, 디자인뿐만 아니라 삶을 이루는 대부분 영역에서 필연적 원동력이 되어 왔다. 디뮤지엄의 'Weather: 오늘, 당신의 날씨는 어떤가요?'展은 시간각각 변하는 날씨의 요소들을 매개로 작업해 온 세계적인 아티스트 26명의 다양한 시선이 담긴 170여 점의 작품을 소개한다. 이번 전시는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그리고 여섯 가지 이야기가 한 권의 수필집처럼 전개되며 관객을 다채로운 감성의 세계로 초대한다.

성폭력 피해자를 탓하는 잘못된 시선,  
또 다른 폭력입니다.

# 아픔에는 공감을 폭력에는 단호히

성희롱·성폭력 없는 대한민국

행인 @hang\*\* 1시간 ✓  
그 사람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는데...  
일·오후 08:00 · 좋아요 · 2 · 답글달기

samh\*\*\*\*  
피해자도 뭔가 잘못했겠지  
오후 7:07

Hey Ja\*\*\*  
왜 이제와서 그러는 거래?  
일·오후 08:00 · 좋아요 · 2 · 답글달기

내공고\*\*\* 2018-04-01  
원래 행동이 좀 그랬대...  
수정 | 답글 | 차단 | 삭제

저녁\*\*\* 2018.03.30  
그때는 왜 가만히 있었대?



# 월간 교정 독자 참여 마당에 응모하세요!

선정되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참여  
코너 1

## 교정 글마당



소설, 시, 수필은 물론 일상에서 발견한 소소한 에피소드까지! 어떤 글이든 좋습니다. 아래의 교정 메일로 보내주세요.

이달의 작품으로 선정되어 교정 글마당에 소개된 분께는 1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참여  
코너 2

## 교정 인스타그램



'교정 인스타그램'에 다음 호 주제와 관련된 사진을 찍어서 짧은 글과 함께 아래의 교정 메일로 보내주세요.

교정 인스타그램 코너에 소개된 분께는 1만 원 상당의 기프트콘을 보내드립니다.

\* 다음 호 주제는 '교정 인스타그램' 칼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참여 방법

1. 참여하고 싶은 글이나 사진(원본)을 준비한다.
2. 소속, 직급, 이름, 전화번호를 적어 correct2015@naver.com으로 보낸다.
3. "작품이 선정되었습니다"라는 전화가 오기를 기다린다.



법무부 교정본부